

韓·中修交 5주년기념 세미나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동伴者關係의 모색

1997. 8. 2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中修交 5주년기념 세미나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

1997. 8. 2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목 차

序言	3
I. 要約 및 展望	5
1. 要約	6
2. 評價와 展望	12
II.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5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16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23
3. 討論	30
III.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37
1. 外國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38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42
3. 討論	49
IV. 綜合討論: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57
V. 參考資料	71
1. 開會辭	72
2. 祝辭	75
3. 午餐演說	78

서 언

韓·中 양국의 경제협력은 貿易·直接投資 등 다방면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간 貿易은 상대국가의 무역규모에 있어 제3위의 지위를 차지할 정도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投資에 있어서도 中國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中國의 4대 외국인투자(직접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교한 지 불과 5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韓·中 양국의 經濟協力이 그만큼 인위적으로 단절되었었다는 점을 反證하는 동시에, 修交라는 양국관계의 正常化儀式을 통해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韓·中修交 5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난 5년간의 經濟協力 成果를 평가하고 問題點을 분석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양국간 협력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적지않은 意義가 있다고 본다. 本 研究院은 本院과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中國巨視經濟研究院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2일 北京에서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韓·中修交 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21세기 韓·中 경제발전 및 협력방향, 中國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전략, 揚子江開發事業 참여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다.

本 研究院은 향후에도 月例 韓·中經濟懇談會와 年例 韓·中經濟學術大會를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교류를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다. 韓·中修交 5주년 기념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정리한 이 報告書가 中國과의 향후 경제교류확대에 다소라도 寄與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는 亞洲經濟室의 鄭永祿 研究委員이 編輯하였음을 밝혀둔다.

1997.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楊 秀 吉

要約 및 展望

1. 要約

鄭永祿
本院 研究委員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面에서도 우리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증가율이 상징해 주듯 刮目할 만한 伸長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21세기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韓國과 中國의 21세기 경제발전의 비전을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무역을 확대·균형관계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대중국투자를 여하히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수교 5주년을 맞이한 만큼 과거의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금번 韓·中 수교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의 성격 규명, 韓·中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中國의 향후 성장잠재력 평가, 揚子江유역 개발,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과제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21세기의 특징

우선 양국 세미나 참가자들의 21세기에 대한 평가는 ‘경제의 세기’이면서 中國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경제적 활력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될 것이라는 데로 집약되었다. 특히 평화와 발전의 세기이면서 또한 경쟁과 협력의 세기가 될 것임을 예측(王永治 pp. 23-24)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진전될 것이며,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를 종합한 소위 “종합적 국력”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嚴洛

鎔(p. 17)도 21세기가 세계화에 더해 정보화 시대가 될 것임을 예측하면서 개도국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와 빈번한 시장통합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구조조정 등을 능동적으로 행함으로써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藍世良(p. 33)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경제중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될 것인바, 이는 韓·中 양국경제의 더 많은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세계경제는 더욱 국제화되고 많은 국가와 민족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각국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만큼 한·중 양국 정부와 경제계, 기업계 관계자들의 임무와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常修澤(pp. 64-65)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세계경제의 '고도성장'은 전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科學技術革命 특히 情報革命과 生物科學革命을 들고, 21세기의 인류사회는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하였다. 또한 국제경제의 일체화와 지역경제의 집단화 추세에 따라 자금과 자원, 기술 및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폭넓고 빈번한 이동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鄭元翊(pp. 30-31), 鄭永祿(pp. 31-32) 등은 21세기가 대체로 동·서 냉전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세기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력의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중국은 현재 2050년을 전후하여 경제규모면에서 세계선두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GNP도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치안정·민족단결·사회발전이 중요하며, 경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기술적 기초확립,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인구문제, 취업과 노령화 문제, 자원과 환경문제, 지역간 발전격차 문제해결이 주요 극복과제(王永治 p. 26)로서 대두되고 있다.

2) 한·중 경제협력 평가와 과제

(1) 한·중 경제협력 평가

韓·中 수교이후 지난 5년간 진전된 경제협력은 놀랄 만하였다는 것이 대체로 발표자(嚴洛鎔, 王永治)와 토론자(李元泰, 慕海平)간에 일치된 견해였다. 우선 교역면에서 92년의 64억 달러에서 96년의 200억 달러로 약 3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30%)하

고 있다. 투자면에서도 우리나라의 對중투자는 96년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3,877건, 27.2억 달러¹⁾로 증가(嚴洛鎔)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훨씬 늘어나고 있다. 즉 96년말 현재 8,409건, 36.7억 달러²⁾로 집계되고 있어,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실행기준으로 약1.4배, 계약기준으로는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통계상의 차이는 韓國의 많은 기업체들이 아직도 제3국을 통한 투자를 수행(王永治)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투자에 비해 일단 계약에 나서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韓·中 양국의 관계와 관련, 상호 경합성과 보완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경합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嚴洛鎔)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특히 王永治는 韓國의 세계화와 中國의 다원화 전략, 95년 韓國의 해양개발 구상과 中國의 해양경제활성화 구상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양적인 팽창과 잠재력에 반해 韓國측의 문제점과 中國측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는 각종 제안이 제기되었다. 우선 韓國측의 문제점으로는 초기에 中國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對중투자의 질적인 문제점과 中國경제의 지역적, 산업적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투자(가령 중·서부지역에 대한)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王志樂 pp. 67-68)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측이 제기한 개선안은 다양하였는데, WTO 조기 가입, 제도의 투명성 확보, 부가가치세 환급 철폐 문제, 신규개방지역인 내륙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및 한국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千辰煥 pp. 50-51), 내륙 투자지역에 대한 주택 및 교육시설 확충(鄭溶 p. 53), 공휴일 통관업무실시(金弘志 p. 60)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 5년이라는 단기간내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협력 실적을 쌓아 가고 있는 것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었다.

(2) 향후 과제

현재의 韓·中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해 볼 때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역품목을 다양화하여 계속해서 교역량을 확대하되 상호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에 적극 참여, 수지균형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李

1) 실행기준이며 계약기준으로는 38.8억 달러임.

2) 실행기준이며 계약기준으로는 118.9억 달러임.

元泰 p. 58, 鄭鍾旭 p. 78).

둘째, 초기 韓國정부는 韓·中산업협력협정 체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바 있는데, 이제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좀 더 요구(李元泰 pp. 58-59)되는 시기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慕海平 pp. 34-35)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韓·中 경제협력과정에서의 기업역할과 관련, 韓國의 기업그룹 육성경험을 中國경제개혁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韓國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王志樂 pp. 68-69)되고 있었다.

셋째, 협력분야와 관련, 일반 제조업 뿐 아니라 농업과 기초시설, 기초산업, 하이테크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慕海平)하되, 특히 中國이 우위에 있는 항공우주, 마이크로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개발분야에 대한 협력가능성이 면밀히 검토(王永治 p. 28)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낙후한 국유기업 개혁에 과거의 우리 경험을 살려 적극 참여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쌍무간 협상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과 관련,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맞춰 양국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는 中國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姜慶植 p. 38)하고 APEC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필요(嚴洛鎔 pp. 22, 慕海平 p. 35)가 있다. 이는 韓·中 관계가 단순히 양국 관계 뿐만이 아니라 21세기 韓國의 최대과제가 될 南·北韓 관계와 관련, 中國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環渤海지역 경제개발에의 참여(王志樂), UNDP 豆滿江개발사업을 포함한 시베리아 자원개발, 沿海洲개발, 동북아환경보존사업 등을 적극 추진(嚴洛鎔 p. 22)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숙련고급경영자층의 육성, 韓國개발경험의 공유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中國의 성장 잠재력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中國이 21세기 중엽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韓國 학계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다. 嚴洛鎔(p. 20)은 구매력 기준 평가치를 인용, 2000년의 中國 GDP가 EU와 비슷한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할 정도로 中國의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中國 측에서도 2020년에 자국 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美國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견

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中國측은 1인당 GNP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다음세기 중엽 中國 경제규모는 세계 각국중에서 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中國은 인구대국으로 금세기 말 13억, 다음세기 초 14억, 중엽에는 최고 약 15~16억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中國의 국민 1인당 경제력 수준은 경제대국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1인당 국민생산총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향후 적어도 백여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揚子江유역 개발 소개

中國은 과거 20여년간에 걸친 대외의존형 개발전략을 추진해온데 이어 최근에는 揚子江 개발을 포함한 국내경제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揚子江경제지대는 주로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을 통칭하며, 동쪽의 上海에서 서쪽의 四川省 攀枝江市에 이르기까지 揚子江 40여개 지역 및 시를 포함하고 있다. 토지면적은 약 40만 km²로 전국의 4%, 인구는 2억 여명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5년 GDP 기여도가 RMB 1조 4,000억으로 전국의 24%를 차지(徐國弟 p. 42)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또한 揚子江 연안은 수력에너지개발 잠재력이 1억 9700만kw로서 그 규모가 세계적인 바, 향후 동 지역의 경제발전은 현재 中國이 추진하는 투자의 “西進·北上” 추세와 함께 21세기 中國경제 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동 지역 개발은 中國의 고속성장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막대한 에너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대외의존형 경제개발의 한계 극복, 그리고 동·서 지역격차의 해소 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揚子江 연안의 하류인 上海는 2010년까지 국제적인 경제·금융·무역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重慶 또한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경제활력이 늘어나고 있어 21세기 中國경제는 揚子江 연안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揚子江 경제지대의 발전은 中國 경제체제의 전환과 성장방식의 전환 등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하며,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실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中國은 시장경제법칙과 경제의 내재적 연계를 토대로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浦東개발구와 三峽댐 건설을 계기로 하여 揚子江 경제지대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빠르면 2010년까지, 이 지역을 연해지역의 경제력에 상당하는 종합적인 경제지대로 발전시켜, 揚子江 내륙항과 연해항구가 일체화된 揚子江종합 운수망과 中國 최대의 국제항구群을 형성하여 上海와 長江연안의 대·중·소 도시들로 구성된 도시체제망을 기본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인구·자원·환경과 발전이 상호 조화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모색(陳玉蓮 pp. 55-56)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되고 있다.

5)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과제

(1) 외국인투자의 역할

全載旭(pp. 61-62)은 中國경제발전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과 관련, 4가지를 지적하였다. 우선 외자기업의 수출은 中國의 수출 증가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 외자기업 수출액이 中國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40.7%로 증가하였다. 두번째, 외자기업으로 인해 신규 고용이 증가하였는 바, 1995년 외자기업의 고용자수가 10만 명을 상회하는 성·직할시는 廣東省, 北京, 天津 등 12개 지역에 달했다. 셋째, 中國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제약요인중의 하나가 자금의 부족이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국내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中國의 전사회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공헌도는 1985~91년간 5.0~7.0%에 불과했으나 1991~96년간 15.7~18.7%로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외자기업을 통한 세수증대는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중 하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외자기업의 진출은 단순한 자본이나 기술의 이동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된 선진 관리기능, 경영기법 등 시장 경제에 필요한 발달된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이어짐으로써 과거 계획경제하에 있던 中國 기업에도 큰 자극과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가(鄭溶 p. 51)하고 있다. 즉, 선진적인 관리 및 경영기법은 中國 기업들이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체질개선을 추진하였고 크게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千辰煥(pp. 49-51)은 외자기업의 개선과제로 다음을 지적하였다. 즉 △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 정책의 입안 부서와 집행부서의 이중성 문제, △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장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내륙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연안 경제특구 등의 개방 지역과 동일 수준의 우대정책만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 中國측은 95년 6월 “외국인투자 지도방침에 관한 잠정 규정”을 택해 장려, 허용, 제한, 금지업종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업종을 분류한 바 있으며, 특히 귀금속광물의 채굴과 항공운수에 대해서도 실험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을 공표(張曉強 pp. 40-41)하고 있다.

2. 評價와 展望

中國에 대한 경제력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일찍이 世界銀行은 1992년 현재 中國의 GNP가 US\$2조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제3위라고 발표(註)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이 숫치는 구매력 평가기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경제력 평가는 中國으로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장(소위 emerging market)으로 부각됨으로써 세계 각국이 中國과의 경제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中國이 경제대국화 하게 되면 세계 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따른 부담으로 경제교류를 꺼려하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표 1〉 中國의 中長期 경제발전 전망치(DRI/McGraw-Hill 예측치)

(단위 : %)

	단위	1995년	2000년	2000~2010년 연평균	2010년
실질GDP 증가율	%	10.5	8.5	7.8	-
소비자물가상승률	%	17.1	9.1	8.3	-
수출 증가율	%	13.4	9.3	8.5	-
수입 증가율	%	10.0	10.5	9.0	-
명목 GDP	억달러	6,977	15,479	-	35,888
1인당 GDP(PPP 기준)	달러	2,921	4,810	-	8,154
총교역량(서비스 포함)	억달러	3,259	5,459	-	10,381
환율(달러당)	元	8.35	8.863	-	9.175
인구	백만명	1,211	1,286	-	1,354

자료 : DRI/McGraw-Hill, *World Economic Outlook*, First Quarter, 1997

주: World Bank(1994), *China's GDP Per Capita*, Washington D.C. 참조.

것이다.

〈표 1〉에는 DRI-McGraw-Hill이 전망한 中國경제 발전 예측치를 정리해 놓고 있다. 中國은 지난 78년 개혁·개방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과거 20년간 꾸준한 성장을 지속,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때 6.4 천안문 사태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바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江澤民 총서기가 친화력을 발휘, 정치적 안정을 서서히 찾아가고, 경제적으로도 92년 鄧小平 선생의 中國 남부지방 순찰이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게 됨으로써 연평균 10% 이상의 실질성장을 거듭해 온 바 있었다. 그 결과 世界銀行을 비롯한 유력기관은 향후 中國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그 동향을 예의 주목하고 있다.

이제 中國은 대내적으로 가격개혁을 단행하고 대외적으로 수출에 의존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하던 패턴에서 탈피, 제2단계 경제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도 여러 발표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것처럼, 中國은 아직 WTO 체제에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제도정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 95년 6월에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 목록(금지, 제한, 허용, 장려)도 과거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방안 수립과 함께 三峽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요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20년의 경제발전이 국내적으로 시장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참여자들에게 대한 자극과 동기 부여를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반시설이 비교적 발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유치, 이들로 하여금 수출에 나서게 함으로써 한때 GNP에 대한 수출·입 합계로 평가한 대외의존도가 40%가 넘어선 바 있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에 대한 학계의 비판(가령 Lawrence Lau)과 순탄하지 않은 美·中 관계가 中國으로 하여금 자체 수요 기반확충에 나서게 하고 이것이 三峽댐 건설이라는 세기적 공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中國의 과제는 1차적으로 中國 전체 발전에서의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 재정립과 함께, 앞으로 어느 지역 및 정도까지 中國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을 확대하여 국내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체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이다.

이와 함께 三峽댐 건설을 통해 최근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上海 浦東신시가지로부터 동·서를 횡단하여 최다 인구 지역인 四川省의 攀枝花市까지를 수로로 연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 교통망 확충은 물론이고 경제발전에 따

라 비례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서간의 경제교류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 국내·외 자본의 대대적인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EXIM Bank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對中國 자금공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외자조달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금년 상반기 현재 외환보유고가 1,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외환수급 사정이 어느 때보다도 순조로운 상황으로, 생각보다는 타격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세미나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9월말 中國 정부가 15차 전당 대회 개최를 계기로 2단계 경제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개혁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이에 대한 조화로운 처리가 요청되고 있다. 즉 中國은 지금의 시기야말로 지도자 그룹의 현명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中國은 이미 인구문제, 취업, 노령화문제, 자원과 환경문제,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 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장 경제가 가져올 소득 분배에 대한 불만, 즉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鄭元翊)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中國의 저축과 투자율, 외자 이용이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하는 정책의 지속과 양호한 국제경제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嚴 洛 鎔

韓國 財政經濟院 次官補

1) 序

韓國과 中國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면서 지난 수천년간 우호와 선린을 지속해 온 사이이다. 물론 간혹 긴장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갖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함께 발전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근대화과정에서 韓國은 1960년대 당시, 세계 최빈국이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 오늘날 가장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선발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OECD 正式會員으로 가입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와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中國은 70년대까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시장경제원리를 가미하면서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8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中國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거둘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韓國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먼저 적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中國도 다소 늦었지만 韓國 못지 않게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적 성공은 개별국가의 독자적 능력이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양국 경제발전의 바탕에는 공유된 가치관, 문화적 동질성, 역사적 전통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92년 8월 24일의 양국 국교정상화는 이러한 힘을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2) 韓國經濟의 現況 및 未來像

21세기 韓國경제와 韓·中관계의 미래상을 거론하기에 앞서 韓國경제가 처해 있

는 여건과 韓國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韓國경제는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래 30여년의 기간내에 빠른 성장을 거듭하였는데, 96년에는 GNP 규모 세계 11위, 교역규모 세계 12위로 성장하였다. 南北분단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내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으로는 강력하고 통찰력있는 지도력, 양질의 노동력,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정부의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수출촉진적인 무역정책 등 개방적인 경제정책은 韓國경제를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세계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수단은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내자와 외자를 직접 동원하여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투자위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적극적 시장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대부분의 개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韓國경제는 발전의 활력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오던 아시아국가들의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경제는 95년의 8%대 성장에서 작년의 7.1%로 GDP 성장률이 낮아졌고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5%에 가까운 2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경쟁력은 낮아졌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많이 위축되었다. 97년 들어서도 아직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95년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순환측면과 함께 96년 2/4분기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종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랜기간을 두고 누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80년대 후반이후 계속된 높은 임금상승률, 금융비용, 물류비용,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과다한 정부의 규제 등이 경제체질을 상당히 약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Globalization, 정보화 등 추세에 발맞추어 韓國경제가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韓國을 비롯한 산업화과정에 있는 아시아의 많은 開發國들에게 급변하고 있

는 세계 경제질서와 시장통합에 따른 불확실성은 많은 도전과 기회를 함께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력과 함께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韓國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당면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개혁, 정부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경쟁촉진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이 우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시책은 21세기 韓國경제가 건강한 활력을 찾는 바탕이 될 것이다. 즉, 다가오는 21세기에 지향하고 있는 韓國경제의 발전방향은 양적인 경제지표의 개선과 함께 경제질서와 구조가 질적으로 선진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소득이나 물가상승률등 경제지표가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이 확립되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풍요롭고 안정된 복지문화국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역량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의식 등 모든 측면에서 국제화된 열린 사회가 건설되면서 경제력신장에 상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기

〈표 2〉 韓國의 主要 經濟指標 推移

구분	단위	'62	'82	'92	'94	'95	'96
GNP	억달러	23	717	3,057	3,780	4,517	4,804
GNP성장률	불변, %	2.2	7.5	5.0	8.4	8.7	6.9
GDP성장률	〃	-	7.6	5.1	8.6	8.9	7.1
1인당 GNP	달러	87	1,834	7,007	8,508	10,076	10,548
총 저축율	%	11.0	24.4	34.9	35.4	36.2	34.6
국내총투자율	%	11.8	28.9	36.8	36.2	37.4	38.6
대외 투자율	%	-1.9	-3.6	-1.5	-1.2	-1.9	-
소비자물가	'90=100, %	-	70.9	116.1 (4.5)*	129.3 (5.6)*	135.1 (4.7)*	141.8 (4.5)*
경상수지	억달러	-0.6	-26.5	-45.3	-45.3	-89.5	-237.2
무역수지	〃	-3.3	-25.9	-21.5	-31.5	-47.5	-152.8
수출(FOB)	〃	0.5	218.5	766.3	960.1	1,250.6	1,298.3
장기자본수지	〃	0.07	12.3	72.3	58.6	79.0	118.0
단기자본수지	〃	-0.07	8.9	11.1	31.6	56.3	54.2
외환보유고	연말,억달러	1.7	69.8	171.5	256.7	327.1	332.4
환율	연말,원/\$	13.0	748.5	788.4	788.7	774.7	844.2

* ()내는 전년말 대비 상승률임

대한다.

아울러 현재 선진경제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예를 들어 노령화사회, 재정적자의 지속적 확대 등의 문제점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3) 韓·中 經濟協力の 現況

21세기 韓·中 경협관계는 韓國경제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한층 더 성숙되고, 심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韓·中 양국간 교역은 1992년 8월 24일의 국교 정상화이후 크게 증가하여 총교역량(직교역 기준)이 1992년 63억 8천만달러에서 1996년에는 199억 2천만달러로 92년 대비 3배가 되었다.

이에따라 韓國의 전체교역중 中國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년의 4.0%에서 96년에는 7.1%로 늘어나 中國은 美國, 日本에 이어 韓國의 3위 교역국이 되었다. 中國의 수출에 있어서 韓國의 점유율도 크게 늘어나 韓國은 홍콩, 臺灣을 제외할 경우 中國의 3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표 3〉 韓·中 交易推移

(단위 : 억달러)

	1988	1992	1994	1996	'92~'96 연평균증가율
수 출	3.7	26.5	28.9	113.8	44.0%
수 입	13.9	37.2	25.6	85.4	23.1%
무역수지	△10.2	10.7	3.3	28.4	...

韓國은 철강, 전자, 섬유 등 소비재와 공업원료를 주로 수출하고, 中國으로부터 자원, 농수산물, 섬유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구조인데, 총량적인 무역규모 증가와 함께 교역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韓國이 섬유제품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中國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하는 등 동종산업간의 분업 등 양국간 수평적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韓·中 투자협력은 국교가 수립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재 中國이 韓國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을 정도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국교정상화와 함께 양국간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그리고 과학기술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에 힘입어 1991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161건, 1억 4천만달러의 투자가 1996년말에는 총 3,877건, 46억달러로 40배이상 늘어났다.

업종측면에 있어서 섬유, 의류, 완구, 피혁제품,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화학공업 등 대형업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4〉 韓·中 直接投資 現況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허가건수	허가금액	투자금액
~1991*	161	145.7	64.5
1992	269	221.3	141.1
1996	875	1,658.3	801.5
(1996년누계)	(3,877)	(4,618.5)	(2,720.2)

* 잔존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5〉 業種別 投資現況(96. 12월말 現在 累計)

(단위 : 건, 만달러)

구 분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합 계	3,538	411,826.6	2,874	266,259.2
광업	17	1,407.5	15	926.9
임업·수산업	41	1,028.5	37	748.5
제조업	3,063	33,353.7	2,495	223,347.9
건설업·운수업	58	21,744.8	47	11,717.6
무역업	50	1,515.2	39	842.9
기타	309	52,593.5	241	28,675.4

자료 : 한국은행

4) 韓·中 經濟協力の 未來像

中國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카이저(A.J. De Keijzer) 박사는 금세기말까지 中國의 GDP는 EU와 비슷한 5조달러에 달하고, 왕성한 구매력을 가진 약 8억의 소비인구가 활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中國경제는 21세기중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따라 中國은 다른나라들로부터 세계경제질서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틀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中國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WTO

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韓國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며 앞으로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中國경제를 더욱 가속적으로 세계경제의 일환으로 편입시키면서 왕성한 투자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中國은 1990년대에 계속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커다란 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中國에게는 세계 도처의 華僑 경제망을 활용하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홍콩은 韓國기업의 제4위 교역지역이며 중요한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홍콩의 中國 귀속이후에도 홍콩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中國정부의 입장에 韓國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韓國경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中國경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中國경제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실현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국간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감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다자간 협력을 창출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의 韓·中간의 경쟁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日本, 美國, EU 등 주요 선진국시장에서 中國이 韓國과 시장점유율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양국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을 이루는 관계라고 생각된다. 즉 양국 경제는 경쟁관계보다는 서로 이익을 위해 합쳐될 수 있는 상호보완관계의 성격이 훨씬 더 큰 것이 분명하다.

中國경제는 활력있는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기술을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韓國이 축적하여온 경영기법과 자본, 산업기술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다면 양국간의 경험잠재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러한 경험 잠재력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양국간 교역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中國을 기지로한 제3국 진출, 中國 첨단기초과학의 상업화 참여, 그리고 자원개발 수입 등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韓國측은 그동안 개발한 原子力發電技術과 경험을 바탕으로 中國의 原子力發電 건설사업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中國의 내륙지방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韓國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미 中國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가장 큰 수원국인데, 中國의 낙후지역 SOC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韓國정부는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韓·中 양국정부는 상품과 자원의 자

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완화, 제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인적, 물적, 그리고 기술면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킬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양국 금융기관간의 교류 협력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세계경제질서는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는 GATT체제가 확립되면서도 지역주의의 확산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외면하기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과 中國은 창설당시부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가 지역의 광대함, 참여국가들의 이질성과 이해의 상반성 등을 극복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韓·中 양국은 北韓, 日本, 러시아 몽골 등을 포함하는 지역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中 양국의 협력이 양국관계 차원을 떠나 동북아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산적해 있다. UNDP의 豆滿江 개발사업, 三江평원 농업자원개발, 시베리아 자원개발, 沿海洲 개발, 수산업개발 등은 韓·中 양국 노력여하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벼멸구대책, 황사현상대책 등 환경 프로젝트 등도 양국 주도하에 관련국간 긴밀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이다.

韓·中 양국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韓半島내의 南·北韓간 쌍무적 협력으로 이어져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밑거름을 형성할 것이다. 中國과 北韓의 노동력, 러시아와 中國의 자원, 그리고 日本과 韓國의 자본 및 기술이 합작할 영역은 21세기를 밝게 비추고 있다. 韓·中 양국은 각국이 지닌 훌륭한 자산과 가능성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韓·中관계에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王永治

中國 國家計劃委巨視經濟研究院 副院長

금세기의 마감에 즈음하여 회고해 볼 때 지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 中·韓 양국도 자주독립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생활향상 등의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며, 中·韓 관계 또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 中·韓 양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를 향한 中國과 韓國의 전략은 무엇이며 그리고 中·韓 관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실로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1) 적절한 機會의 活用을 통한 21세기의 挑戰에 對備

새로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평화와 발전의 세기이자 또한 경쟁과 협력의 세기가 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선 21세기는 세계의 다극화 추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안정을 유지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현재 대대적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21세기 인류문명의 추세 또한 소수의 일부 국가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를 종결시키게 될 것이다. 세계의 다극화 추세는 평화, 민주, 화해, 협력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형성하여 전 세계 경제가 보편적으로 번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발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평화와 발전의 국제환경 하에서 새로운 산업구조 조정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전반기내에 완결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라 국제분업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기술, 정보,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각국의 경제도 상호의존과 협력이 한층 강화되며, 국제 경제 협력과 왕래 또한 더욱 밀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고 문화 배경도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 의해 구성된 지역 경제기구 또한 적

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 北美, 亞太 지역이라는 3개의 거대한 경제권 중에서 中國과 韓國을 포함하고 있는 亞泰經濟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및 새로운 에너지 등 신과학기술 성과가 대대적으로 활용되며, 중요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산업화의 가속화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여러 분야에서 인류사회와 경제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의 종합적인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발전은 경제와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종합국력의 발전으로 상징될 것이다. 종합국력을 비교함으로써, 국제경쟁이 일어날 것인데, 특히 科學技術과 人才의 競爭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나라가 경제력을 증강하고 하이테크를 발전시킬 때 비로소 국제경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국제환경은 中國의 경제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中國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경제의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中國은 또한 경제와 과학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압력과 국제관계상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국가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21世紀 中國의 經濟와 社會는 급속히 發展할 것으로 전망

1979년에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中國경제는 공업화, 시장화 그리고 국제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고속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경제발전과 체제개혁의 결합과 국내 발전과 대외개방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면모로 세계의 발전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中國의 경제는 빠른 발전을 하였는데, 1979년부터 1995년중 中國의 GNP는 연평균 9.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90년대의 전반기 5년 동안의 연평균 GNP 성장률은 12%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中國의 경제 체제, 국민생활 및 사회와 문화 등 분야에서도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1996년 3월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제시된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9차 5개년계획(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개요>에는 중국이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5년과 21세기를 시작하는 처음 10년 동안 시행할 거시목표와 중요한 정책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의 실행상황으로 볼 때 9차 5개년계획과 2010년까지의 거시목표와 중요한 정책조치는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中國이 연평균 8% 정도로 계속 발전할 경우 2010년의 GNP는 2000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 생산력, 종합국력, 국민생활 수준 등이 또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 공업의 전체 수준도 90년대 초의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일부 영역에서는 곧 선진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에도 國內·外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50년을 전후로 하는 21세기 중반에, 중국은 鄧小平이 제시했던 제 3단계의 전략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규모면에서 세계의 선두 대열에 서게 될 것이며 1인당 GNP도 선진국 초기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몇 세대와 백여년에 걸치는 노력을 거쳐 대략 21세기 말이나 22세기에 가서야 완전히 성숙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 단계에서 향후 100년 동안의 발전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중국 경제와 사회가 향후에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鄧小平이 제시한 ‘中國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시행 과정에서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中國 정부와 국민은 경제와 사회 발전 과정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대화의 전략, 방침, 정책을 실현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치안정과 민족단결 및 사회발전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양호한 국내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新中國 설립 이후 특히 20세기의 70년대에 시작된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21세기의 발전을 위해 물질과 기술면에서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中國은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21세기에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시자경제 체제와 규범화된 경제 운용 질서, 그리고 건전한 법률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시장 메카니즘이 자원의 배분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기술 수준과 전체적인 자질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4) 21세기에는 中國의 대외개방 확대에 의해 중국과 세계 경제의 관계가 더욱 밀

접하게 될 것이다. 中國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이상적인 장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中國은 향후에도 해외자본과 기술 그리고 관리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의 경험과 장점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블록화 전략을 통하여 中國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中國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향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외자를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한 자금 제공원이 될 것이다.

6) 中國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인구의 증가와 1인당 소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시장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국민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 기초 위에서 中國은 開途國의 중간 수준에서 점차 부유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소비량도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가 계속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와 문화 소비 수요 또한 현저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의 성장에 대하여 거대한 추진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 대해서도 거대한 흡인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조건은 21세기에 中國이 공업화와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예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中國도 21세기에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현대화된 공업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공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한 中國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인구문제, 취업과 노령화 문제, 자원과 환경 문제,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 등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압력은 향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될 것이며, 환경오염의 처리문제, 동부와 중서부 지역간 발전 격차의 해소 문제 등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수립과 발전 문제 또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순과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이의 해결을 통하여 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中國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開途國이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수용함과 동시에 中國의 실제 상황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조방 성장 방식으로부터 집

약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향후의 경제 발전은 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품질 그리고 효율성의 향상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中國 정부는 현재 “大型 統制, 小型 放任” 정책과 자산의 재조정 등의 방식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 경제구조 조정을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한 조정의 가속화, 자원의 개발과 절약의 동시 추진,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의 발전” 및 “지속적인 발전” 전략의 관철, 지식과 인재의 존중,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하이테크 개발 촉진, 기술의 개발과 보급의 동시 추진,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의 동시 발전 추진,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국내외 자본과 시장의 동시 활용,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확대, 외국 경험의 학습, 시장기능을 자원 배분의 기본 원리로 활용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천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운영 규율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규율에 대한 中國 정부의 인식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國 정부는 鄧小平의 中國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념 하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문제점을 능히 극복하고 中國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며 나아가 21세기 인류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3) 中·韓 兩國의 協力は 21世紀 새로운 發展의 토대

中·韓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양국간 무역과 경제 협력은 전면적이고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1992년 64억 달러 수준이었던 中·韓 무역은 1996년에는 200억 달러에 도달하여 매년 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 왔다. 현재 中國은 韓國의 3대 무역국이 되었고 韓國은 中國의 5대 무역국이 되었다. 1996년 말 현재 中國이 승인한 韓國 기업의 對中 투자는 8,409건에 달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118.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액은 36.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韓國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中國은 韓國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韓 양국간 기술 협력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양국간 기술 교역액은 1995년의 1.3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0억 달러로 신장하여 韓國은 이미 中國 기술 설비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자동차, 고화질 TV, 대형 TDX 등 영역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中·韓 관계의 전망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 상호 보완, 경쟁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날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공통적인 이익은 양국간 경제와 무역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中·韓 관계를 크게 중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국제 경제 협력의 촉진과 亞太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삼으려 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자국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과 종합국력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양호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국은 공히 경제발전, 사회진보 및 민주법제 건설의 촉진이라는 임무에 당면해 있으며 또한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경제의 관점에서 韓國이 1993년에 제시한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화 전략은 중국이 제시한 다원화와 국제화 전략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韓國이 1995년에 제시한 해양개발 구상과 中國의 沿海各省이 제시한 해양 경제 구상 또한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밖에 양국 간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교류의 역사와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유사한 문화 배경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공통적인 이익과 배경은 양국이 국제 문제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호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경제, 과학 기술, 자원 등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 보완성은 양국간 경제 협력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다.

中國은 현재 공업화의 중간 단계에 처해 있어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 기술,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며, 韓國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필요에 따라 산업구조의 조정을 추진하면서 해외투자와 노동 집약형 산업의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자도입을 통하여 개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영역의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양국간의 상호 보완적 영역과 협력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현재 韓國은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등의 영역에서 세계의 선진국 수준에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방직 등의 영역에서도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이미 세계 5위권에 위치해 있다. 中國은 현재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비록 낮다고는 하지만 항공 우주, 마이크로 전자, 생명 공학,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의 개발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 수준에 도달해 있다.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성과 협력 가능성은 양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력 측면에서 韓國은 1988년 이후 임금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1995년의 경우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이 영국에 비해 30%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韓國

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中國의 제조업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대략 미화 650 달러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韓國의 1/10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中國의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기간 동안 韓國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중서부 지역의 노동력 비용은 더욱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저렴한 노동력은 韓國의 對中國 투자를 계속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측면에서 韓國은 9.9만km²의 면적과 5,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규모는 韓國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제화와 세계화는 韓國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韓國은 中國의 이웃으로서 中國 시장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 측면에서 韓國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8%와 주요한 원자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은 韓國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中國의 경우 일부 주요 자원은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으나 자원의 총량은 매우 풍부하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는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 농산물, 석탄, 희토 등 자원의 개발은 韓國의 경제 발전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주목되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과 노동력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과학기술과 시장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1세기 전 기간 동안에 中·韓 양국의 경제 관계에는 강한 상호 보완성이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中·韓 양국의 경제 관계를 협력과 상호 보완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세기의 中國은 더욱 개방되어 中國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韓國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中國 시장에서 韓國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쟁력과 경쟁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韓國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 수출과 산업 이전의 대상은 결코 中國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中國이 韓國의 자본과 산업의 유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中國의 투자 환경과 中國 경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中·韓 양국 간에는 中國이 심각한 무역 역조를 기록하고 있어 韓國이 농산

물 시장 등 자국 시장의 개방을 크게 확대하여 더욱 많은 中國 상품이 韓國에 유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中國 상품이 韓國에 유입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 달려 있기는 하다.

결론적으로 협력, 상호 보완, 경쟁은 21세기 中·韓 경제 관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협력은 21세기의 국제 환경에서 양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보완은 양국에게 모두 유리한 것으로서 장기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경쟁은 협력과 상호 보완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협력, 상호 보완, 경쟁의 중한 관계는 양국 사이의 경제와 무역 왕래의 훌륭한 전망을 예고해 주고 있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경제학자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國의 巨視經濟研究院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우호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일련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국간에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경제 무역의 협력 관계 발전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 양 기관은 향후에도 더욱 밀접한 협력 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정부와 기업에게 더욱 많은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中·韓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공헌해야 할 것이다.

3. 討 論

鄭元翊

駐中 韓國大使館 參事官

21세기 中國 경제와 韓·中관계에 관한 王永治 부원장의 논문은 세계 경제의 전망을 개괄하고 있으며, 中國 경제의 위치와 韓·中 경제 협력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王 부원장이 발표한 21세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에 공감한다. 즉, 東·西 냉전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였던 바와 같은 국지분쟁의 심화가 지역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로도 이러한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에 치달는다면 이러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

1979년 시작된 中國의 개혁 개방은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中國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은 잘 관리해 나가면 올바른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020년에는 中國 경제가 구매력 기준으로 美國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1인당 GNP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전체 GNP수준에서는 세계 경제의 선두에 서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王부원장이 지적한 대로 국가에 따라서는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잠재되었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가 있었다. 中國은 지금이야말로 지도자 그룹의 현명한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이미 인구문제, 취업, 노령화 문제, 자원과 환경문제,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 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장 경제가 가져올 소득 분배에 대한 불만, 즉 “배가 고프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中國의 저축과 투자율, 외자이용이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하는 지속적인 정책과 양호한 국제경제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中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30% 이상의 빠른 속도로 교역이 증대하였고, 中國은 韓國의 제1의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이는 냉전체제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억제되었던 양국관계가 급속히 현실화되었다는 측면과 양국 협력의 필연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향후 양국간 협력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中國의 수요보다는 韓國의 경제적 능력이 양국 경제 협력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鄭永祿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王부원장이 21세기를 ‘경제의 세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완전히 동감하면서 향후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만큼 韓·中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 정세, 특히 韓半島 문제와 관련 中國이 지역내 안정구도의 정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 무척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과거 20년간 中國이 이룬 경제적 기적이 21세기에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가지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嚴洛鎔 차관보도 지적한 바처럼 하루빨리 中國의 WTO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홍콩의 中國 귀속이후 세계교역구도에서 그 지위가 이미 5위 이내로 부상된 中國이 배제된 WTO체제란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中國이 여하히 美國이나 EU처럼 한 개의 “진정한 시장(세계 각국의 수출이 자유로운)”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中國은 개혁·개방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원활한 외화조달속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中國이 현재처럼 대외의존도 40%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대외의존적 경제발전에만 의존하는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中國은 다음 2가지에 21세기의 운명개척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三峽댐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동·서격차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내수사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 좁게는 中華경제권 및 동북아경제권, 크게는 상기 두개 경제권이 결합된 새로운 아시아경제권 형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바, 향후 양국간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 현재의 韓·中 경제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아시아적 경제협력의 모델창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향후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藍世良

中國 國家計劃委長期計劃局 局長

금방 王永治 부원장과 嚴洛鎔 차관보의 주제발표를 듣고 많은 격려와 암시를 받았다. 두분의 발표는 곧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전례없는 발전을 개괄적으로 회고하였다. 또 최근 30년 동안 中·韓 양국이 이룩한 막대한 성과와 中·韓 수교 5주년 이래 양국관계가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이룩한 급속한 발전을 회고하였다.

王永治 부원장은 또 다가오는 21세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21세기는 평화와 발전의 세기일 뿐만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세기라고 확신하였다. 嚴차관보와 王 부원장은 또 각각 자국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21세기 자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해 논술했다. 王 부원장은 21세기에 있게 될 中·韓 양국간 협력의 아름다운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를 ‘협력과 상호 보완 및 경쟁’으로 개괄하였다. 嚴차관보는 “韓·中 양국간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로 경쟁과 협력과정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관계”라고 묘사하였다.

두 분은 모두 양국간 협력 분야를 상세하게 논술했고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두분의 발표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21세기를 향해邁進하는 中國과 韓國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은 21세기 양국 경제의 한층 발전적인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현 국제형세의 주류는 평화와 발전이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다음 세기도 亞太지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가장 활발한 지역일 것이며 中·韓 양국은 상호 교류과정에 보다 많은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국제화·세계화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므로, 다른 여러 국가와 민족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각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며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식과 경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은 中·韓 양국 정부와 경제계 및 업계인사들 앞에 놓여진 중요한 임무와 과제이다. 양국 경제이론계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평소 공동 연구와 모색을 진행시키고 中·韓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공동으로 개척할 것을 기대한다.

中國경제 발전의 미래에 대해 두 분은 양국 국민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嚴차관보는 “中國은 21세기 중반기에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韓國방문시 만났던 韓國 친구들로부터 이같은 주장들을 많이 들었다. 中國의 경제발전에 대한 韓國지인들의 기대와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한 나라의 경제실력을 평가하려면 전체 경제규모와 상품의 생산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1인당으로 평가한 경제력에 근거한 순위와 제품의 품질 및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펴야 한다.

다음 세기 중반기 中國의 경제규모는 세계 각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인구대국으로서의 中國이 금세기말은 13억, 다음세기 초는 14억, 중반기는 15~16억을 기록할 것인바, 국민 1인당 기준으로 종합국력을 가늠할 경우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때의 1인당 GDP는 중진국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인

데, 1인당 GDP가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려면 몇세대 또는 수백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兩國의 정치와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판단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의할 것이다. 만약 이 점을 간과한다면 잘못된 판단과 정책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는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慕海平

中國 國家計劃委 對外經濟研究所 所長助理

지난 5년간 中·韓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우의 특히 양국간 경제무역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양국과 양국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亞太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 中國세관 통계에 따르면 1996말 현재 中·韓 양국간 수출입무역 총액은 이미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수출은 75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였다. 금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수출입무역 총액은 87.1억 달러, 그중 中國의 수출은 33.7억 달러, 수입은 53.5억 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7%, 15.0%, 30.9%가 증가하였다. 1992년의 경우, 中國의 韓國외자 유치액은 1.2억 달러에 그친 반면 1995년은 12억 달러에 달하여 10배가 증가하였고 1996년은 실행액 13.6억 달러, 계약액 42.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韓國의 對中 독자 혹은 합자, 합작기업체수는 7,975개에 달하고 있다.

中·韓 양국은 경제협력기초가 튼튼하고 그 전망이 밝다. 양국은 비슷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쌍무협력은 지난 수년간 규모의 확대와 구조의 조정면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을 볼 때 양국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협력의 분야와 범위는 한층 확대되고 협력수준과 성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다.

中·韓 협력은 양국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쌍방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매우 훌륭한 현실적 여건과 외부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오직 양국이 동등한 대우·우위 및 상호보완·호혜·상호이익·공동발전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와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면 각자의 협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中·韓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양국 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亞太경제협력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中·韓 양국은 모두 APEC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亞太지역의 다자간 협력과 지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경제기술 교류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책임과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양국은 반드시 다차원의 일상적인 협상체제를 건립하고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장을 조절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협력에서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2) 東北亞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東北亞지역에 함께 위치한 中·韓 양국의 자원과 지연 및 시장 등 우위 및 상호 보완성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기 때문에 中·韓 양국과 기타 관련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협력범위와 규모 및 심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최근 豆滿江계획과 環黃海경제권구상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많은 中·韓협력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中·韓 양국은 향후 東北亞지역에서 SOC와 기술개발, 자원이용 및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3) 보다 넓은 분야에서 쌍무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양국간 산업구조 조정의 발전추세와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현재 일반 제조업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협력을 점차적으로 농업과 기초시설, 기초산업, 하이테크산업 및 서비스업 등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되, 자금과 무역 및 시장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와 관리개선을 특히 중시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전체적인 이익과 기업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재정과 금융, 투자 및 무역정책 측면의 쌍무 조정을 강화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보다 훌륭한 정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양국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진보 측면에서 경험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韓國은 대외지향형 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건립 및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역할 등의 측면에서 많은 훌륭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中國은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가운데서 많은 유익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특히 농촌경제의 발전과 기업 개혁 및 거시조정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과학기술진보면에서 양국은 각자의 독특한 우위와 상호 보완 경험을 갖고 있다. 상술한 교류와 협력은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보다 안정되고 튼튼한 협력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中·韓 관계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III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1. 외국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張 曉 強

中國 國家計劃委 外資利用局 局長

1979년 中國정부가 개혁·개방을 시행한 이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79년에서 1996년 사이 연평균 GDP성장률은 10%, 대외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16%를 기록하였다. 중국국민의 생활 수준은 끊임없이 향상되었고 국내투자와 소비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1996년 중국의 GDP는 6조 7,795억 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다. 수출입총액은 2,899억 달러였으며 96년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050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은 2조 3,6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2%가 증가하고 투자율은 34.9%였다. 연간 기본건설의 주요 신규 생산능력중 發電 설비는 1,525만kW, 전화교환기 용량은 2,107만 회선에 달했으며, 이 두 가지 지표는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차5개년計劃에 의하면 1996년에서 2000년까지 中國의 GNP는 연평균 8%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신규 전력설비용량은 8,000만 kW, 신규 프로그램제어전화선은 1억 회선에 도달할 것이며 농업과 도로, 철도, 원자재, 기계전자 및 3차산업 등도 모두 크게 발전할 것이다. 9차5개년계획기간의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약 13조 원으로 연 평균 10%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고정자산 투자율 30%와 유동자산 투자율 7%를 합하면 전체사회 총투자율은 37%에 달할 것이다.

中國의 향후 경제발전은 종래와 같이 주로 국내자금에 의존할 것이지만 中國이 아직도 저소득의 開發國인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中國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외자와 선진설비, 기술 및 관리경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은 또한 中國이 '9·5'계획기간에 빠르고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즉 첫째는 경제관리 방식의 전환으로서, 계획경제의 관리방법에서 점차 시장경제로 옮겨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며, 둘째, 경제성장 방식을 粗放形에서 集約形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中國의 시장전망이 매우 밝고 투자의 질적환경과 양적환경이 끊임없이 개선

되고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中國시장 진출은 전례없이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 17년간의 실적이 보여 주듯이 中國은 비교적 원만하게 외자를 흡수·소화하여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대외개방 초기인 1979년-1983년중 실제로 이용된 외자총액은 144.4억 달러였으며, 그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18억 달러였다. 1991년의 경우, 연간 외자유치액은 115억 달러였으며 그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4억 달러였다. 1996년 실제 외자이용총액은 58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417억 달러로 연속 3년에 걸쳐 開途國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였다.

中國정부는 외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성공경험을 학습하고 또한 中國의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목표와 결합하여, 외자이용 관련 법규와 정책을 조정·개선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진전이었다.

1995년 6월 國務院의 허가를 거쳐 國家計劃委員會와 國家經濟貿易委員會 및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의 지도방향에 관한 暫定規定>과 <외국인투자산업指導目錄>(이하 <暫定規定>과 <指導目錄>으로 칭함)을 공개 발표하였고, 이 두 가지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받았다.

<暫定規定>과 <指導目錄>을 제정, 공포하고 실시하는 목표는 국가산업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자도입 구조의 합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외자이용을 국민경제의 발전 및 산업구조 조정과 보다 합리적으로 연결시키고 투자효율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한 것이다. <暫定規定>과 <指導目錄>을 제정하는 원칙은 첫째, 국제적인 성공 경험 특히 선진국의 성공 경험을 거울삼아 둘째, 국가간 직접투자의 일반 원칙과 통용 방법을 준수하며 셋째,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특성과 결합하여 외자의 투자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넷째, 국가의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구현하여 다섯째, 외자를 이용하는데 간단명료하고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暫定規定>은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허용·제한·금지 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조건과 프로젝트 심사승인 절차 및 권한을 제정하였다. 그중 장려·제한·금지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指導目錄>에 포함하고 나머지 허용유형은 양이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指導目錄>에 포함하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이 정책은 외국인투자의 장려범위, 즉 예를 들면 황무지 개발, 수리종합시설, 지방철도, 도로, 발전소, 마이크로전자 및 국제경제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자문 등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과거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일부 분

야 즉 귀금속광의 채굴과 항공운수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의 실험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분야를 보다 확대하였다.

1995년 國務院은 공문을 발표하여 96년 4월 1일부터 수입설비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와 자재 등은 일률로 법정세율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를 징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과거 자금의 출처에 따라 수입설비와 자재의 세율을 확정하던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향후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한 유형의 설비 혹은 자재를 수입할 경우 단일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1996년 정부는 내륙 성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승인 권한을 확대하여, 내륙과 國務院 각 부문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심사승인 권한을 10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륙 성·시와 沿海 성·시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심사승인 권한을 일치시키고 내륙 성의 외국인투자유치규모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199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은행의 외환결제체제에 포함시키고 96년 12월에는 RMB를 자율적으로 경상부문에 한해 환전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는데, 이로써 외국인의 대중 투자환경을 한층 개선하였다. 中國은 외국인투자기업이 RMB를 대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자기업프로젝트를 순조롭게 건설하도록 하고 프로젝트의 경제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양적인 데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가 기초시설과 기초공업, 하이테크 및 외화창출형 수출산업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구조조정과 대외개방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1997년 4월에 〈국외에서의 프로젝트유자에 관한 暫定規定〉을 공포하고 현재 〈BOT(Built, Operate, and Transfer) 暫定規定〉의 제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교통·도시수도건설 등 분야에서 BOT 혹은 프로젝트유자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은 〈외국인투자산업指導目錄〉을 집중적으로 개정할 것인바, 개정된 〈목록〉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장려·허용·제한·금지 규정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시장경제의 요구 및 국제관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중국의 외자도입 경험에 따르면 외자가 여전히 일반 가공공업(50%)과 부동산·호텔(30%)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분포의 경우 沿海지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외자의 산업구조와 지역구조의 합리화를 중시할 것이며, 특히 중점적으로 장려할 분야는 농업개발과 전력 중심의 에너지, 도로 중심의 교통, 주요 원자재 건설프로젝트 및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제

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업의 기술경제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혁프로젝트,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외화가득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자원을 종합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이다. 동시에 국가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중·서부로 유도할 것이다. 외국인의 중·서부지역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沿海지역에서는 투자를 제한하고, 중·서부지역에서는 제약조건을 완화할 것이다. 沿海지역은 '9·5'기간에 계속해서 대외지향형 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기술수준과 부가가치의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중·서부지역은 '9·5'기간에 에너지와 원자재 및 인력자원이 우세할 것이며, 외국기업이 그 지역에서 자원개발형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노동집약형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될것이다. '9·5'말에 이르러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수용 비중을 전국의 30%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中國은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개방에서 최근 몇 년간 커다란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2년 이후 소매업과 민간항공 및 보험업 등 업종을 잇달아 개방하였고, 1996년부터는 또 중외합자 대외무역기업의 설립과 연쇄상점운영을 허용하고 외자은행에 대해 RMB업무의 취급을 실험적으로 허용하였다. 향후 통신설비와 관광업 등의 업종도 조건부로 외자에 대해 실험적으로 개방할 것이다. 외자의 출처에 있어서 中國이 지난 17년간 외국기업과 계약한 4,700억 달러의 투자액중 홍콩·마카오·臺灣 지역의 투자가 70%를 차지하였다.¹⁾ 향후에도 외자 출처의 다양화를 장려할 것인데, 특히 韓國을 포함한 신흥 공업국가와 開途國들의 對中투자를 환영한다.

中國경제가 원활하게 발전하는 것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외국기업들에 광활한 제품시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 및 개선과 더불어 中國의 국제경제협력과 외자이용 규모는 필연적으로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中國의 경제와 사회발전 및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에 보다 크게 공헌할 것이다.

1) 그중 일부는 유럽과 美國 및 日本 등 국가의 외자가 상기한 지역을 통해 中國대륙에 우회투자된 것임.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徐 國 弟

國家計劃委 國土開發 및 地域經濟研究所 所長

揚子江경제지대는 주로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을 일컬으며, 동쪽의 上海에서 서쪽의 四川省 攀枝江市에 이르기까지 揚子江 40여개 지역 및 시를 포함하고 있다. 토지면적은 약 40만km²로 전국의 4%를 차지하며 인구는 2억 여명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1995년 GDP는 1조 4,000억元으로 전국의 24%를 차지하였고, 1인당 G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39% 정도 높았다. 이곳은 揚子江유역에서 가장 발달한 경제지역일 뿐만 아니라, 中國의 고밀도 경제개발지역이기도 하다.

1) 揚子江경제지대 개발의 의의

현 中國의 경제발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며 둘째, 불균형적이라는 점이다. 발전목표의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8기 4차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개요>(이하 <계획개요>)로 칭함)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2000년의 인구가 1980년에 비해 3억 정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1인당 GNP는 1980년보다 4배로 성장하며, 2010년은 GNP를 2000년의 2배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계획개요>는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간 발전격차의 점차적인 해소” 방침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새로운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江澤民 총서기와 李鵬 총리는 모두 수년전에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천명하였다. 1992년 10월 江澤民 총서기는 中國共產黨 14기 대표대회에서 上海浦東의 개발과 개방을 필두로 揚子江연안 도시를 더욱 개방하며 上海를 하루빨리 국제경제와 금융 및 무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함으로써 揚子江삼각주와 揚子江유역 전체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1992년 6월 李鵬 총리는 揚子江삼각주 및 揚子江연안지역의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좌담회에서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의 개발·개방 및 경제발전을 추진함

으로써 中國의 2단계 및 3단계 전략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계획개요>는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은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공업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기술수준도 높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浦東의 개발과 개방 및 三峽건설을 계기로 강 연안의 중대형 도시에 의존하여 점차적으로 동서를 횡단하고 남북을 연결시키는 종합경제지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즉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의 개발, 개방 및 경제발전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전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관계되고 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중앙이 沿海지구 개방에 이어 경제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채택한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정책결정이다.

2) 揚子江경제지대만의 이점

揚子江경제지대는 이 지역이 갖는 천혜의 독특한 종합적인 우위로 세계 최대규모의 沿江산업지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볼 때 揚子江경제지대의 우위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지역적 우위: 揚子江은 中國의 중심 부분을 가로 지르고 광활한 경제적 배후지를 보유하고 있다. 揚子江은 중국의 동·중·서 3대 경제지대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京滬·京廣·京九·皖贛·焦柳 등 남북철도간선²⁾과 합류되어 경제발전이 가능한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2) 자원의 우위: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하여, 揚子江은 中國 제1의 강으로서 수량 또한 전국 제1위를 차지한다. 揚子江의 수력 에너지 저장량은 2억6천8백만 kW, 개발가능량은 1억9천7백만 kW이다. 그리고 揚子江 상류는 세계적인 수력 에너지 개발 가능한 '富鑛帶'이며, 광산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산업의 우위: 이 지역은 공업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발전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 기초공업은 철강공업이 가장 우위에 있으며, 제조업은 자동차·석유화학·기계·전자 등 기간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중대형 도시는 생물공학·항공·레이저기술·정보·신소재 등 하이테크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대규모 기초농업도 전국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揚子江연안 9개 성·시의 식

2) 京滬는 北京-上海, 京廣은 北京-廣州, 京九는 北京-九龍, 皖贛은 安徽-南昌, 焦柳는 焦作-柳州를 각각 연결하는 노선임

량·면화 생산량은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4) 인력자원의 우위: 이 지역의 노동력은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자질 또한 높다. 上海·南京·武漢·重慶 등 중심도시의 많은 전문학교와 대학 및 과학연구소에는 자질높은 인재들이 모여있으며, 이는 揚子江경제지대의 건설에 없어서는 안될 인적자산이다.

(5) 시장의 우위: 上海浦東의 개방과 三峽댐 건설이 수천억RMB에 달하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고밀도 인구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강한 소비수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해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자유통시장 역시 비교적 활발하다.

(6) 교통의 우위: 揚子江은 '황금수로'로서 선박운송의 잠재력이 막대하여 현재 5000톤급 화물선이 武漢港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成都—重慶, 武漢—黃石, 南昌—九江, 合肥—蕪湖, 南京—上海 등 일급 도로가 연이어 개통되었으며, 上海에서 銅陵, 九江에서 武漢에 이르는 沿江철도의 구간이 개통되고 九江·黃石·銅陵·蕪湖 등지의 揚子江대교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또는 건설중에 있다.

(7) 정책적 우위: 중앙정부는 上海浦東지역과 蘇州공업지역 및 三峽지역의 17개 현·시와 중상류 지역의 8개 도시에 일정한 우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보장해 주었다. 揚子江삼각주와 沿江지역은 이미 10개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와 3개 보세구 및 16개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설립하였다.

(8) 시대적 우위: 中國의 沿海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조정은 지역경제의 연합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투자의 '西進'과 '北上'은 현 中國경제의 새로운 추세가 되었고 외국인투자도 '西進'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 특히 중상류지역의 발전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앞서 서술한 8개 항목의 잇점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揚子江경제지대는 沿海지역과 견줄 수 있는 일급 개발지대로 되었으며, 향후 동부沿海지역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활력과 잠재력을 지닌 발전의 대표지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전국 산업구조 조정과 거시경제 구조의 개선 및 지역경제의 협력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沿江개방·개발전략을 실시함으로써, 揚子江연안의 7개 성과 2개 시는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로서, 沿江 9개 성·시의 G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36.1%에서 1996년의 39.3%로 상승하였다. 둘째,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9개 성·시의 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 전국 비중은 1991년의 35.3%에서 1996년의 39.5%로 상승하였다. 셋째, 외자도입의 급속한 발전으로서 1991년~1995

년 9개 성·시의 외자유치액 증가율이 연평균 107%를 기록, 전국 수준에 비해 36% 포인트가 높았으며, 실질 외자유치액의 비중은 1991년의 14.5%에서 1995년의 31.4%로 급증하였다.

揚子江연안 성·시들의 향후 발전계획은 沿江지역을 발전중심지로 삼아 揚子江경제지반의 건설을 통해 해당 성·시의 발전을 자극하는 것이다.

揚子江지반 경제의 고속 발전은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치에 따르면 이 지역의 200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 내외, 다음 세기초 1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에 도달할 것이다. 이 두 단계의 성장속도는 같은 기간 전국의 경제성장속도에 비해 2-3% 포인트가 높은 것이며, 이 지역은 中國內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揚子江지역의 산업발전 전략

○ 농업: 농업은 “三湖兩江一盆地”를 중점 발전시켜야 한다. 三湖는 太湖와 鄱陽湖 및 洞庭湖를 가리키며, 兩江은 淮河와 漢江의 평원, 一盆地는 四川분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개간가능한 低産地가 많으며 특용 경제작물의 개발전망도 매우 밝다.

○ 철강, 석유화학 및 자동차공업: 철강공업의 발전은 강재를 다품종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은 에틸렌을 중심으로 “대형·선진·계열·집중”의 방침에 따라 기존 설비를 바탕으로 재생산을 확대하며, 3대 합성재료도 일정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자동차공업은 국가자동차산업정책의 유도하에 대형 기업집단과 표준화·계열화·일반화된 자동차 부품 생산체제를 수립할 것이다.

○ 기계공업: 대용량의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핵발전 설비, 대형 선박, 민용 항공기, 위성과 항공탑재설비, 정밀선반 및 디지털 선반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 전자공업: 揚子江삼각주를 中國의 전자공업기지로 건설하고 제품은 집적 회로, 통신설비, 계산기 및 기타 외부설비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동시에 소프트웨어와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강화한다.

○ 경방직공업: 기술개조에서 출발하여 경방직제품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揚子江下流의 전통적인 경방직공업을 점차적으로 중상류와 주변지역으로 이전시킨다.

○ 에너지공업과 교통운송업: 에너지공업의 발전은 상류의 수력자원 개발 속도와

규모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대형 화력발전기지를 선정해야 하며 원자력의 발전도 필연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교통운송업의 발전 중점은 揚子江간선의 석탄과 석유, 광석, 생필품, 자동차 및 컨테이너 등 운송시스템을 연합 건설함으로써 揚子江의 전체적인 운송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 지역발전 中心都市의 육성

揚子江경제지대는 실제로 3개 경제권과 2개 沿江경제구로 구성되어 있다. 3개 경제권은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揚子江삼각주 지역과 武漢을 중심으로 하는 揚子江중류 지역 및 重慶을 중심으로 하는 揚子江상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2개 沿江경제구는 安徽·江西 沿江경제구와 三峽댐 지역을 포함한다.

○ 揚子江삼각주 지역: 이 지역의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9%를 차지하고 토지면적은 전국의 1%를 차지하며 GDP는 전국의 15.2%를 차지한다. 揚子江삼각주 지역은 揚子江경제지대의 중요한 경제권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핵심경제지역이다. 揚子江삼각주 지역은 그 지역이 갖는 비교적 강한 파급력을 이용하여 揚子江경제지대가 21세기에 국제시장을 향해 매진하는 선두기지가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다.

揚子江삼각주 지역의 산업배치에 있어서 上海는 주로 금융, 무역, 정보 등 3차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켜 2010년의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중심지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중심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上海·南京·杭州를 연결하는 철도주변 지역은 기계·전기 일체화, 통신설비, 정밀화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 沿江지역과 沿海 지역은 항구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며 강철, 석유화학, 에너지, 건축자재를 위주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揚子江중류 지역: ‘9성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이며 농업이 발달한 이 지역은 武漢을 중심으로 하여 長沙, 株洲, 湘潭의 삼각지역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산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에 있어서는 에너지, 야금, 석유화학,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 공업과 국가급 농업기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武漢—九江 구간은 자동차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수준 높은 가공업을 발전시키고, 武漢 등 중대형 도시는 기술집적형 산업과 금융, 무역, 서비스 등 3차산업을 발전시키며, 武漢을 중심으로 대형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도시체계를 완비하고, 수상운송을 중심으로 揚子江항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킨다. 長沙·株洲·湘潭 지역은 湖南省에서 막강한

실력과 강한 파급력을 갖춘 성급 경제핵심지역으로 점차 발전할 것이다.

○ 揚子江상류 지역: 重慶 직할시의 설립을 계기로 오랜 공업기지의 기술개조를 돌파구로 하여 기술력이 높은 신흥산업과 3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력발전소와 야금기지를 건설하며 이에 연관된 건축자재, 기계, 경공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 重慶市를 西部地域의 경제중심 도시로 조속히 육성시켜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 安徽·江西 沿江지역: 현재 이 지역은 경제기초가 아직 취약하지만 발전잠재력은 크다. 향후 발전 방향은 첫째, 南京 등 하류지역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安徽省과 江西省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기계·전기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시켜 沿江지역의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 三峽댐 지역: 토지면적이 약 59,900km²이고 인구가 약 1,600만명인 이 지역은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경제가 낙후한 전국 최고 빈곤지역중의 하나이다. 三峽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발전 목표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수력발전 에너지기지 개발, 揚子江 중상류의 중요한 산업지대육성 및 三峽 특색을 갖춘 관광지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 경제가 번영하고 환경이 아름답고 국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살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산업발전의 중점은 농업의 종합개발과 내부구조 조정을 통해 자체의 특색이 있는 식품과 경방직공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宜昌 등 지방은 화학공업과 비철금속 제련업 및 건축자재업을 적절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川漢鐵路의 건설을 가속화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대외경제와 연계시키는 관건이다.

5) 三峽댐건설의 향후전망

三峽개발은 三峽댐 건설과 三峽거주 주민이주 및 三峽지역 경제발전 등 3가지 사업이 같은 보조로 시행되어야 한다.

(1) 三峽댐 종합시설 건설 상황

三峽댐 종합시설은 홍수방지, 發電, 항운, 환경보호, 양식업, 용수 등 거대하고 종합적인 이용 효율을 갖고 있는 초대형 수리·수력발전 사업이다. 종합시설에 대한 투자는 1993년 5월말 가격기준으로 계산하면 500억 9천만 元이며 送·變電 사업과

주민이주사업을 합친 총투자액은 약 954억 원내외이다.

三峽댐 건설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3년의 시공준비와 1994년 12월 14일 정식으로 착공된 이래 1997년 5월 31일까지 파낸 흙·모래·돌과 되묻은 흙·모래·돌 및 콘크리트 타설은 각기 계획의 90%와 55% 및 14%를 완수하였다. 사업 투자 누계액은 222억 원이며 그중 주민이주로 인한 투자액은 70억 5천만 원으로서 모두 국가가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되었다. 1997년 11월에 揚子江의 수량 변동과 기상조건에 따라 揚子江의 물막이공사를 계획중에 있다.

(2) 三峽댐 지역의 주민이주사업 진행 상황

三峽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2개 도시, 11개 縣城, 114개 集鎮, 1,599개의 공업·광산기업이 이전하고 재건설을 하게 되며 24,500ha의 경작지와 34,795,000m²의 가옥 및 일부 전문시설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846,200명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시공기일과 인구성장 요소를 고려하면 이주민구는 120만명에 달할 것이다. 三峽의 주민이주는 1985년부터 실험적으로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정식으로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揚子江 물막이공정 요구에 따라 물막이공사 직전에 3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배치해야 하고 125개의 공장을 옮겨야 하며 25개의 集鎮을 옮겨 재건설해야 한다.

三峽의 주민이주에 대해 국가는 ‘개발형 이주’와 ‘적절한 지원’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여러 부처간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물막이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三峽지역 경제발전 계획개요의 실시 상황

國家計劃委員會가 작성한 ‘三峽지역의 경제발전 계획개요’는 1996년 3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1년여 동안 ‘계획개요’에서 제기된 일부 구체적인 임무가 점차 하달·시행되고 있다.

첫째, ‘계획개요’에서 제기된 주요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되었고, 둘째, 주요 기간산업의 프로젝트가 건설중에 있으며, 셋째, 일부 국내의 대기업그룹과 유명 브랜드제품 생산업체들이 댐 지역에 입주하였고, 넷째, 댐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대정책도 점차 실시되어 정식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 발전 추세로 보면 三峽댐 지역의 경제발전은 전국의 다른 댐 지역 건설에 있어서 시장경제조건하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은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그 역할은 매우 어렵고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은 통일성 있는

계획하에 연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이 지역을 中國의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지대와 강한 파급기능을 가진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발전시킴으로써 中國경제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

3. 討 論

千 辰 煥

LG그룹 中國本部 社長

먼저 國家計劃委員會 張曉強 局長께서 발표한 “외국기업의 진출 기회와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은 中國의 경제 발전 상황과 외자 도입 현황 및 中國 정부의 외자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韓國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中國시장 진출이 많이 늦어져 이제 겨우 5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 이미 中國 시장에서 장기간 경험을 쌓아온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中國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현재 中國 전체 공업생산액의 20%, 총교역액의 45% 이상이 외국기업의 지분임을 볼 때 中國 경제발전에서 외자기업의 위치와 역할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점차 대규모화, 첨단 산업화되고 지역적으로도 沿海로부터 내륙으로 확산되는 등 中國 정부의 장기발전전략과 외자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韓國 기업 역시 비록 5년의 짧은 역사이기는 하나, 투자 진출의 증가속도는 어느 국가 못지 않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투자기업들이 中國정부에 대해 바라는 기대치와 제시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문제이다. 외국 투자기업들은 中國의 정책에 따라 상당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에 대한 선행조사를 하지만 예고 없이 잦은 정

책의 변화는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통업 개방의 경우 지난 92년 6개 도시에 한하여 각각 2개 업체에 허가토록 한 바 있으나, 中國내 기업의 반발로 97년 5월부터 갑작스럽게 허가 중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사전에 알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예컨대 ‘입법예고제’같은 조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책의 입안 부서와 집행부서의 이중성 문제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관할 부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법규, 문건 등의 해석에 대한 차이로 항상 문제 발생의 소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租賃公司(Lease Company)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對外經濟貿易合作부와 中國人民銀行이 함께 관할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책임 회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장 차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일반적으로 中國의 기업체나 지방정부와 투자상담을 진행할 때 종종 “중앙에 정책이 있으며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중소형 투자의 경우에는 소위 ‘대책’에 의존할 수도 있겠으나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도가 높으므로 투명하고도 일관된 정책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는 沿海지역에 적용하였던 특구정책 이상의 획기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내륙지역에 미흡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며 특히 수출입과 연계된 투자사업은 운송 등의 물류비용 문제로 진출에 한계가 있고, 내수 시장의 개방 역시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므로 어떤 획기적인 투자 우대 조치가 없는 한 외국 기업의 진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자들께서도 언급하였듯이 修交 5주년을 맞는 韓·中 양국은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협력 과정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성을 갖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동북아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두 번째로 발표하신 國家計劃委員會 徐國弟 소장의 “長江 연안 지역의 개발 현황과 전망”은 中國의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中國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잘 반영한 논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長江 연안 지대의 경제 개황을 통하여 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中國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개혁·개방을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연착륙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연안지역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中國 정부는 내륙지역으로의 경제발전 확대를 위하여 외자 유

치를 촉진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내륙 지역의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연안 경제특구 등의 개방 지역과 동일 수준의 우대 정책만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上海, 重慶, 南京, 長沙, 杭州를 포함하고 있는 ‘長江경제지대’가 中國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훼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長江은 분명 中國의 하천이지만 그 영향은 주변국에까지 미치는 外延的 국제 하천이므로 長江의 환경과 괴는 인근 국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96년 여름 長江의 범람으로 다량의 담수가 난류를 타고 韓國의 濟州道 연안 해역으로 유입되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짐으로써 濟州道 공동어장의 전복, 소라 등의 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長江의 범람이 韓國의 해양과 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서, 長江의 환경 조건과 그 유역의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주변 국가 및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끝으로 長江경제지대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長江 경제지대의 향후 계획과 관련, 그간 韓國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中國 정부가 韓國기업에 대한 長江경제지대의 투자항목 및 개발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韓國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鄭 溶

三星 中國本部 專務

中國은 개혁 개방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외자도입을 추진한 中國 정부와 이에 맞춰 中國 시장에 투자한 많은 외국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외자기업의 진출은 단순한 자본이나 기술의 이동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된 선진 관리기능, 경영기법 등 시장 경제에 필요한 발달된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과거 계획경제하에 있던 中國 기업에도 큰 자극과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진적인 관리 및 경영기법은 中國 기업들이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여러 문제

점들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추진하였고 크게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도 고도의 발전된 경제구조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선진 노하우가 축적된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中國기업이 세계화, 국제화로 가는 중요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선진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 영업망을 통해 中國 제품이 보다 빨리, 광범위하게 세계 경제와 접목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中國 정부가 일련의 특구 또는 개발구를 선정하고, 각종 면세 및 우대조치 등 비교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환경하에 中國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기초 과학 기술 등이 결합하여 외자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자기업의 中國내 진출이 더욱 확대되어 中國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자 기업들이 中國에 진출한 목적중의 하나가 잠재력이 풍부한 中國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이다.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은 궁극적으로 외자기업의 더 많은 투자를 동반하게 됨은 물론이고, 외자기업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어 中國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여러 상황에 대한 中國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외자기업에 대한 내수시장 진입장벽이나 판매에 대한 여러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고 中國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와 中國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사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외자기업 진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내 각종 내국세제와 규격심의 등 행정제도와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외자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中國 역시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바, 상호주의와 보편적인 기회 균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中國에 대한 투자 진출시 또하나의 장애요인은 그 동안 자본재 도입시 부여해 오던 면세 혜택을 철폐한 것으로서, 이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기업은 물론, 中國 기업에도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철폐 문제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中

國은 시장경제 하에서 양성된 경영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기업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직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 정립이 있어야 한다.

내륙지역, 특히 揚子江 유역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개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륙 지역이 계획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내륙지역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인프라의 취약은 물류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가져옴에 따라 경쟁력 취약으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내륙 각 지방정부에서 세제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방정부들의 우대 정책들이 연안지역의 개발구와 별 차이가 없음에 따라 내륙진출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우대정책을 펴야 하겠으며 SOC 분야 등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특히 내륙지역은 주거환경과 외국인 취학 자녀들을 위한 시설 등이 더욱 취약하여 외자기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中國 정부가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

邵 寧

中國 國家經濟貿易委 企業局 局長

張曉强 선생의 발언은 中國 경제발전 전망과 외자이용 현황 및 최근의 외자이용 정책을 간명하게 소개한 것이다. 張 선생의 소개를 통해 中國의 투자환경은 시장화의 방향에 따라 한층 규범화되고 中國 외자정책의 투명도도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中國의 외자이용 총액중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417억 달러를 기록해 각 부문의 예측을 훨씬 초과했다. 예측을 초월하는 이같은 외국기업 직접투자 규모는 국제사회가 中國 경제발전을 밝게 전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中國정부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中國의 경제발전은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의 가속화 단계에 처해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경제의 급성장을 토대로 中國 국내시장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국내시장

수준도 부단히 높아져 신흥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시장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기존 산업도 조정과 개선을 거쳐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시장수요에 적응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기존 산업의 개선은 향후 수십년간의 中國 경제발전에 대량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기회는 中國뿐 아니라 개방이 확대되는 현재의 국제경제질서에 비추어 세계각국에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中國의 외자유치에 있어서 경제발전에 대한 밝은 전망과 넓은 국내시장은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요구에 부합되고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창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은 中國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혁목표로서 이러한 개혁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기업에 공평하고 동등한 시장경쟁 환경을 마련해주고, 각 유형 투자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체제를 형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 中國 외자이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다.

陳 玉 蓮

中國 國家計劃委 國土地區局 副局長

國家計劃委員會 지역경제연구소장 徐國弟 교수가 발표한 〈揚子江경제지대의 개발 현황과 전망〉제하의 논문은 이 지역의 개발·개방과 발전에 대한 中國정부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술하여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개방 이후 中國정부는 揚子江강연안지역의 경제발전을 크게 중시하고 또 뚜렷한 성과도 거두었는데 이는 바로 徐교수가 소개한 바와 같이 1995년의 경우, 이 지역이 생산한 GDP가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1인당 GDP도 전국의 평균치에 비해 40% 포인트나 높았다는데서 알 수 있다.

揚子江강경제지대는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중국의 동서를 가로 지르고 남북을 접하고 있는데, 이곳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황금수로’와 ‘황금해안’을 한곳에 집중시킨 지역의 하나이다. 강 연안에는 200여년의 발전 역사를 지닌 공업도시 몇개가 있고 몇갈래의 주요 철도 및 도로간선과 항공노선이 전국의 각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 및 인력자원이 있고, 강철공업과 자동차공업, 석유

화학, 전자 및 기계공업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이다. 농업발전도 전국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비교적 많고 주민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아 시장이 광활하므로 커다란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다.

1990년 6월 中國정부는 上海浦東新區의 진일보 개방·개발에 관한 전략적 정책 결정을 수립하였다. 1992년 鄧小平의 남부지역 시찰소감발표이후, 黨中央과 國務院은 鄧小平의 취지를 관철·수행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의를 黨中央과 全國人民代表大會 문서중에 기록하였다. 國務院은 잇달아 沿江의 蕪湖·九江·岳陽·黃石·武漢·宜昌·萬縣·銅陵·重慶 등 沿江 내륙도시를 개방도시로 승인하였으며, 이 지역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0개, 보세구 3개, 하이테크산업개발구 16개를 설립하도록 승인하였다. 1996년 中國은 8기 全國人民代表大會 4차 회의가 통과시킨 〈中華人民共和國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개요〉에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역사 발전은 江澤民主석을 핵심으로 한 黨中央과 國務院 및 全國人民代表大會가 토론·통과시킨 관련 결정과 결의가 정확하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揚子江 연안의 江蘇·浙江·安徽·江西·湖南·四川 등 7개 성과 上海 및 重慶 두개 직할시는 지난 6년여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부문에서 건실한 발전을 기록하였다. 즉 전국적으로 이 지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6년동안에 3.2%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기타 국민경제 종합지표도 모두 전국의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浦東을 중심으로 한 揚子江경제지대 발전의 가속화는 中國경제의 3단계 발전전략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 즉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면에서 시도하고있는 근본적인 전환의 실현 및 중·서부 지역의 경제진흥, 전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전한 발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개요〉가 확정한 시장경제법칙과 경제의 내재적 연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현 경제구조를 기초로 하되 浦東의 개방·개발과 三峽댐건설을 축으로 하는 발전방향에 따라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2010년 혹은 보다 긴 기간중에 이 지역을 中國의 沿海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실력을 지닌, 상·중·하류지역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국민생활이 보다 풍요로운 종합경제지대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揚子江내륙지역과 沿海의 항구가 합리적으로 분업할 수 있고, 상호 연결되며 상호 결합하는 揚子江종합운수망과 中國 최대의 국제항구군을 기본적으로 건설할 것이다. 또한 국제대도시 上海와 강 주변의 중대형 도시 및 중소도시로 구성된

도시체계망을 기본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로써 인구와 자원, 환경과 발전이 상호 조화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中國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은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를 결합하여 단계적으로 산업발전의 중점과 지역내 우위산업을 확정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정책과 법률 및 법규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는 浦東의 기초건설과 기능개발의 강화 및 三峽댐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홍콩주권행사 회복과 곧 맞이하게 될 마카오주권 회복, 그리고 中國共產黨 15기 당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揚子江경제지대 건설사업의 성패여부는 국내·외 상인 및 지인들의 지대한 관심하에 진행될 것이며, 필히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 揚子江경제지대의 발전목표는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IV. 종합토론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李元泰
中國韓國商會 會長

韓·中 수교이후 양국의 경제교류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의 양국 교역규모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규모의 증가뿐 아니라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바, 韓國기업의 對中투자는 96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3,907건 46억 6,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무역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渤海灣과 東北 3성지역에서 長江유역 대도시와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韓國經濟新聞이 중국 전역에 진출한 120개 韓國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對中투자 만족도에 의하면 ‘만족’이 45.9%, ‘보통’ 35%로서 대체로 中國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한편 中國내 경영의 당면과제로는 법규와 행정조세문제(25%), 내수판매문제(25%), 인사노무관리문제(20%), 원자재조달문제(16.7%) 등을 지적하였고 ‘판매대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수시장의 전망은 어둡다’가 16.7%, ‘보통’ 30.8%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韓國기업의 현지적응능력 향상과 中國의 각종 여건 개선에 힘입어 韓國의 對中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향후 양국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양국은 교역품목을 다양화하고 상호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韓國은 中國으로부터 수산물과 의류, 공구류, 전자부품, 일반 기계, 생활용품 등 中國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中國 또한 韓國으로부터 설비투자 확충과 대형프로젝트사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조달을 늘리고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의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인접한 양국 정부의 교역 증대를 위한 노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양국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조치 등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협력측면에서 中國은 韓國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韓國의 對中國 투자는 수교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의류, 피혁제품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화학 공업 등 대형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 韓國은 외국기업의 對中國 투자총액중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 中國당국이 유념해야 할 점은 韓國이 걸어온 경제발전단계가 어느 국가보다도 中國 발전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中國이 수용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韓國기업들은 최근 中國의 자본집약적인 대형 프로젝트,

중화학공업, 3차 산업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韓國 기업의 참여폭이 넓혀질 경우 中國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셋째, 양국 경제교류협력 주체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정부기관은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기업은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맞춰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양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추진 등 태평양 경제시대의 전개에 대응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韓國이 中國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中國이 韓國과의 WTO 쌍무협상을 가장 먼저 타결 짓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 진전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韓·中 경제교류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北韓의 단계적인 개방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北韓 경제의 안정은 韓國은 물론 中國에도 중요하다. 韓國은 北韓과의 경제교류 당사자로서, 中國은 北韓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로서, 각각 北韓의 경제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 韓·중간의 對北동반협력은 상호의 '미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韓·中양국은 이런 관점에서 더욱 긴밀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국은 지리적인 근접성과 문화적 공통배경, 생산 자원의 상호보완적 부존도, 개발 경험등을 십분 활용해 상호간에 실리를 찾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韓國과 中國은 21세기 지구촌경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金 弘 志

KOTRA 北京貿易館 館長

1992년 8월 24일 개시된 韓·中 양국의 국교수립은 韓·中 양국간의 무역확대와 경제협력의 증진속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韓·中 양국간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리적 인접성, 상호이해가 높은 문화관계, 긴밀했던 오랜 역사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韓·中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무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투자를 위시한 경제 협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양국 무역 확대나 투자확대는 모두 각

자의 국가경제 발전에 유익하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일반적으로 간과해오고 있는 韓·中 경제협력무역의 확대요인들 중에서 다른 요인 하나를 강조하고자 한다.

韓·中 경제협력의 확대요인중 하나는 韓國 기업들이 中國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진취적인 노력의 성과도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韓國기업들은 中國과의 교역확대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매우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였다. 韓國기업들은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 中國語를 배우고, 中國의 문화와 전통 관습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의 범세계적인 국제화, 세계화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WTO체제의 출범과 세계화 추세는 韓·中 양국기업들에게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안겨 주었다. 이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韓國기업들이 중국 현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中國기업들은 호혜 원칙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韓國기업만의 일방이 아니라 韓·中기업 쌍방간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中國은 개혁·개방을 실시해 오면서 외국기업에 대하여 많은 우대조치와 지원을 하여 왔으며, 中國의 투자환경 개선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해 볼 때 투자관련 법규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 조세감면지원, 행정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기업들은 금융이나 조세감면의 지원 외에도 中國 정부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정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노력하는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들은 中國 정부가 공휴일에도 수출입물품 통관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원은 바로 외국투자 기업들의 상품생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中國에 투자하면 中國정부의 각종 우대조치와 지원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과 확신이 설 때 韓·中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全 載 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責任研究員

中國은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비약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동유럽 및 舊蘇聯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급진적 개혁·개방 정책과 대비되는 점진적 시장화, 대외지향형 연해지역 개발전략, 단계적 대외개방을 추구한 中國식 개혁·개방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中國의 경제발전과 외국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中國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지역개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中國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中國은 1970년대말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1992년 鄧小平의 남부지역 시찰소감 발표를 계기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가속화 정책의 전개, 내수시장의 확대와 개방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등 일련의 조치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증, 1993년에는 계약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中國의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세계개혁, 제도변경, 우대정책의 수정 등의 영향으로 그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¹⁾

1979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아마 당시 中國 정부가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中國의 대외개방 이후 달성된 고속성장도 국유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분석된다.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의 확대이다.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中國 수출증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수출은 1980년에 8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에는 615.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외자기업 수출액이 中國 전체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1981년과 82년에는 그 비율이 0.2%에 그쳤으나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증가, 1995과 96년에는 각각 31.5%, 40.7%에 달했다.

둘째, 고용의 창출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은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포함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고용창출을 보면, 92년, 93년, 94년,

1) 실행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95년에 각각 221.3만명, 288.2만명, 399.7만명, 502.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고용자수는 연평균 3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 고용자수는 1996년말 현재 1,7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신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吳儀 부장이 금년 1월 20일 전국 대외경제무역 업무회의에서 밝힌 수치이다.

셋째, 자금의 도입이다. 중국에 있어 경제발전의 큰 제약요인이 자금부족 현상이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국내자금 수급은 크게 완화되었다. 예컨대 中國 총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고정자산투자에 대한 공헌도는 5.0~7.0%에 불과했으나, 1991년 이후의 공헌도는 15.7~18.7%로 높아졌다. 1995년 외자가 총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공업생산액이 中國 공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이는 GDP의 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넷째, 재정수입의 증대이다. 외자기업을 통한 세수증대는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재정수입에 대한 국유기업의 조세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외자기업을 포함한 기타경제부문을 통한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기타경제부문의 비중은 1985년에 1.0%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5.5%에 달했다.

다섯째, 기술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관리혁신이다. 외자기업을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기업 경영메커니즘의 전환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외자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은 ① 특허와 기술 노하우를 직접 이전하는 방법 ② 제3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특허나 기술 노하우를 재이전하는 방법 ③ 외자기업이 기술소유권자로부터 직접 특허권을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中國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선진기술, 설비의 도입은 산업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했다. 또한 선진 경영관리기법의 도입은 中國人的 경제관과 가치관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기업 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中國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한 문제점과 모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경제의 발전 및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의 실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둘째, 외자기업의 투자가 가공산업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잦은 변경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값싼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급증으로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실시는 국유기업과의 산업간 격차가 벌어지게 하고, 특구稅制의 우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에 저촉되는 등 국내기업과 국제경제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國의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최근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國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점차 해소해 외자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유치정책도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선진기술을 위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산업정책과 투자유치정책을 연계시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中國정부는 1994년 3월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 요강」의 발표에 이어 1995년에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暫定規定」과 「외국기업 투자산업 指導目錄」을 공표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향후 中國의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은 종전과 같은 외국인 투자의 양적 확대에서 탈피하여 지역개발정책, 산업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中國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방침은 1996년 3월 개최된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도 재확인되는 등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의 우대조치가 2,000년까지 철폐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우대조치 철폐에 대해서는 계획을 명시하고 유예조치와 보상조치를 두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시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常修澤

中國 國家計劃委 經濟研究所 副所長

오전과 오후에 걸쳐 中·韓 양국의 여러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많은 교훈과 격려

를 받았다. 얼마전 나는 中國대표단의 일원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된 中國·美國·日本·韓國 등 4개국 “아시아·태평양 포럼” 제1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韓國, 美國, 日本의 공무원 및 학자들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당면한 도전”과 관련하여 비공개 토론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의 문제가 토론되었다. ① 세계경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문제 ② 과학기술과 정보 혁명문제 ③ 환경과 에너지 문제 ④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도덕 문제 등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경제는 전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다. 50년 동안에 세계 국민생산총액은 3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무려 9배가 증가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현재 사람들은 21세기 세계경제의 발전문제를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다. 나는 21세기 세계경제의 발전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 혁명, 특히 정보혁명과 생물과학 혁명의 조류가 세계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21세기의 인류사회는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점차 들어설 것이며, 과학기술 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은 가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생산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조류속에서 세계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와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할 것인데, 특히 개발도상국은 5% 이상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경제의 일체화와 지역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 자원, 기술,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전 세계 범위에서의 더욱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또한 각국의 경제기술 협력에 보다 폭넓은 기회를 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中國, 韓國과 日本 등 국가를 포함하여 지난 20년간 활발한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나는 최근 수년간 中國과 동아시아 국가간에 이루어진 상호 투자 수치를 계산한 적이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이미 국제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맥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아시아 지역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상호 투자 차원에서 분석하면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속도가 과연 유럽과 北美경제의 일체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中·韓 양국의 학자들이 주목해야하며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中國과 韓國은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중요한 국가로서 수교 5년간 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투자와 금융협력도 빠른 발전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산업 협력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양국의 정계와 재계 및 학계의 공동된 노력의 결실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양국의 경제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역사적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韓國은 발전이라는 전반적인 추세의 영향으로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하바드 대학 세미나에서 亞洲大學校 金德中 총장과 三星 경제연구소 朴態緒 소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 점을 강하게 느꼈다. 中國은 지난 19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경제와 사회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경제력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21세기에 中國의 넓은 시장이 갖는 잠재력은 경제의 급성장을 위해 커다란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높은 저축률도 中國 국민경제가 지속적이며 빠른 발전을 지원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中國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분업과 경쟁면에서 후발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中·韓 양국은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아울러 양국간 교류의 역사가 유구하고 지리적 위치가 가까우며 모두 유교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은 中·韓 협력강화에 양호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中·韓 양국정부, 기업계와 학계의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中·韓 경제무역 협력은 21세기에 더욱 그 잠재력이 크며, 그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王志樂

對外經濟貿易部 研究院 研究員

中國 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 王永治 부원장과 韓國 財政經濟院 嚴洛鎔 차관보가 21세기 中國과 韓國의 경제발전 전망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훌륭한 발언을 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치된 관점, 즉 향후 中·韓 경제협력 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상존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王 부원장이 “협력, 상호보완과 경쟁은 21세기 中·韓 경제관계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서, 협력을 통해서만 21세기의 국제환경속에서 양국의 경제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상호보완을 통해서만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협력이 장기화 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있어야만 협력과 상호보완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한 데 감명을 받았다. 또한 嚴 차관보가 “韓·中 양국관계는 근본적으로 경쟁과 협력 과정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 차원에서 中·韓 양국기업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공동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몇가지 견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6년 우리는 ‘韓國기업

의 對中 투자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40여개 韓國계 기업을 방문하고 그밖의 40여개 한국계 기업의 관리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120여명의 韓國 투자자 및 기업의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금년 연초에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최근 이 책은 大韓商工會議所에 의해 이미 韓國語로 번역·출판되었다. 조사연구와 집필과정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첫째, 기업협력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中·韓 양국 경제협력의 발전과정이 말해주고 있듯이 기업간 협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기업협력은 우선 양국간의 무역발전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1992년 中·韓 수교시 양국간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그쳤으나 1996년말에는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의 급속한 발전이다. 中國 對外經濟貿易合作部の 통계에 따르면 1992년 中國이 허가한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 프로젝트는 650건, 실질 유치액은 1억 2천만 달러에 그쳤으나, 1997년 3월말 현재 中國이 허가한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 프로젝트는 8,754개로 증가하였고 계약기준 투자액은 115억 7천만 달러, 실질 투자액은 4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즉 5년도 안되는 사이에 韓國의 對中 실질 투자액은 35배나 증가하였다.

현재 韓國은 美國, 日本, 싱가포르에 이어 中國의 네번째 투자국이 되었으며, 92년 당시에 9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 급신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발전추세가 지속된다면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될 것이다. 中國 전역에 분포된 천여개의 韓國계 기업들은 中·韓 양국의 5년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지난 수년간 韓國기업과 中國기업의 투자협력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기초와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는 中·韓 경제협력의 중점은 양국의 기업간 협력이며, 현재로서는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韓國기업 특히 대기업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韓國기업, 특히 대형 기업그룹의 실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中國기업과 韓國기업의 합자·협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韓國기업의 中國 진출은 여타 국가의 기업에 비해 훨씬 늦었다. 초기에 中國에 진출한 韓國의 중소기업은 對中투자의 질이 높지 못해 사람들에게 韓國기업의 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사실 우리들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韓國기업, 특히 대기업그룹은 對中 투자의 질이 상당히 높다. 예컨대 三星電子, LG 電子 등의 對中 투자 기업은 자금이 풍부하고 기술이 선진화되었으며 관리가 규범

화되어 있다.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 獨逸, 日本, 美國 등 다국적 회사의 對中 투자 기업과 비교할 만하다.

사실 韓國의 기업그룹은 최근 수년간 세계의 유명 다국적 회사들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타 국가의 기업과 비교할 때 현재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는 목표가 방대하고, 투자의욕이 가장 강하며, 투자규모의 확대도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기업이 中國기업에 제공하는 국제협력의 기회도 가장 많다.

韓國기업은 이미 많은 업종에서 세계의 유명 다국적 기업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中國의 어느 한 업종 또는 어느 한 지역이 외자를 도입하여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韓國 기업을 포함한 여러개의 다국적 회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 韓國회사가 경쟁력을 가졌다면 외국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中國기업이 최종적으로 韓國 회사와의 협력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國기업은 韓國기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韓國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韓國 대기업의 투자를 흡수하여 中·韓 양국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韓國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中國의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韓國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자들의 대중 투자를 위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하드 웨어, 예를 들면 S.O.C 건설의 강화뿐 아니라 투자의 소프트 환경, 예를 들면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對中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다. 韓國기업이 21세기를 지향하여 中國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中國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투자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① 環渤海 지역을 기지로 中國 중서부 지역으로 발전하는 발전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韓國기업의 중국진출 시기는 비교적 늦었으나 지역적 이점으로 인해 環渤海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環渤海 지역은 中國 경제발전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珠江三角洲와 長江三角洲에 이은 세 번째 경제성장 지역인 동시에 中國이 동북아 국제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이다. 環渤海 지역에 대한 韓國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 지역의 경제도약을 촉진시킬 것이며, 環渤海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또한 韓國기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국제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韓國기업은 環渤海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中國 중서부지역으로 진출해야 한다.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외자에 대한 中國정부의 지역유도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다.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 韓國기업은 유럽, 美國, 日本 기업과 경쟁하는 데 유리하다. 그것은 유럽, 美國, 日本 기업은 아직까지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최근 투자를 시작한 상황으로 韓國기업은 거의 동등한 여건하에서 유럽, 美國, 日本 기업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中國 농업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및 기초시설 투자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中國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투자방향은 바로 韓國기업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黑龍江 三江平原의 황무지를 개발하여 식량과 콩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있다. 또한 東北과 華北 지역에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육과 과일·야채의 재배이다. 韓國은 中國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프로젝트의 참여에 있어서 여타 국가의 투자자들이 가질 수 없는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山東의 많은 韓國系 기업은 현지 전력공급이 부족하여 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山東의 관련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韓國 투자자들은 전력건설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中國의 관련 부처와 협력, 山西에 전력공장을 건설하여 山東에 전력을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環渤海 지역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지역의 항구건설, 철도건설, 도로건설과 창고건설은 개조와 확대 및 신규 건설이 급선무이다. 韓國회사,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이미 唐山港口의 부두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협력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③ 中國 노후기업의 기술개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中國 국유기업은 현대 中國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으나 기업의 관리체제 개혁과 경영메카니즘의 전환 및 기술혁신이 순조롭지 못하여 새로운 시장개혁에 실패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 적응하지 못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개선과 경영메카니즘의 전환을 통해 노후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中國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다.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노후기업의 기술개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中國정부가 이미 확정한 방침이다. 韓國의 많은 대기업은 발전과정에서 노후기업의 합병과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쌓았다. 中國에 진출한 韓國의 대형기업들은 이미 中國의 노후기업과 협력하여 기술개조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필자가 방문한 韓國 대형투자 기업은 中國의 노후기업과 협력하여, 기술개선을 많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美國, 日本의 다국적 회사도 中國에 진출하여 경영상황이 좋은 中國기업과의 협력기회를 찾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强强聯合'으로 불리우고 있다. 韓國기업은

中國 진출이 늦었고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強強聯合’을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韓國 회사는 中國의 경영 곤란을 겪는 국유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노후기업의 기술개조에 참여함으로써 그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만일 韓國기업이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中國정부의 지역 및 산업유치정책방향에 적극 부응, 정확한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면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는 中國경제의 현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韓國 투자자들은 中國에서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994년 中·韓 양국은 ‘中·韓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아래 산업협력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中·韓 양국정부의 정기적인 협상을 통해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아주 훌륭한 협력방식이다. 中·韓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산업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협력방식을 모색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겠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環渤海 경제망은 中國에서 省的 한계를 벗어나 中國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주요한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이곳은 韓國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며 韓國 투자자들이 中國의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다. 中·韓 양국의 관련 부처는 環渤海 지역에서의 韓國기업과 中國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 지역에 특별한 협력기구를 설립할 구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中·韓 양국 環渤海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同 위원회는 양측이 관심을 갖는 협력분야와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하고 인력과 자금을 공동으로 동원,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環渤海 경제권의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동북아 국제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對外經濟貿易合作部 對外經濟貿易研究院은 대외경제무역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 및 한국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中·韓 양국의 기업협력 및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참고자료

1. 開 會 辭

楊 秀 吉
本院 院長

존경하는 姜慶植 부총리님, 吳儀 부장님,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을 대표하여 中國의 巨視經濟研究院 余健明 원장과 함께 오늘의 韓·中수교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개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두 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이 행사에 나와 주신 姜부총리님을 비롯해서 吳부장님과 다른 여러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두 나라의 여러 기업인들과 전문가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韓國과 中國 두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관계가 양국간 수교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떠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시각 이후 있을 여러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해 나갈 양국간 경제교류의 잠재력을 100%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은 나름대로 中國의 巨視經濟研究院의 도움을 받으며 두 나라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몇가지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 차원의 지적교류와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하는 「동북아 경제학술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韓·中경제간담회」라는 형식의 작은 규모의 세미나를 北京 혹은 서울에서 번갈아 수시로 개최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인사들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韓·中 두나라간 경제관계의 기반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해 나갈 크고 작은 여러사업에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이 있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미깊은 오늘의 이 행사를 공동개최해 주시느라 현지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巨視經濟研究院의 余健明 원장과 관

계자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余健明

國家計劃委巨視經濟研究院 院長

친애하는 李嵐淸 부총리, 姜慶植 부총리, 신사 숙녀 여러분:

中·韓 수교 5주년을 맞으며 中·韓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일보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中國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과 韓國對外經濟政策研究院은 오늘 이 자리에서 “21세기 中·韓 경제의 비전과 동반자 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韓國의 財政經濟院·주요 기업·中國韓國商會·駐中韓國大使館 등 부문과 中國의 國家計劃委員會·國家經濟貿易委員會·對外經濟貿易合作部·國務院發展研究中心·建設銀行 등 부문 및 國家計劃委員會의 관련 부서와 직속 단위의 약 15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바, 나는 中國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을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표시합니다.

1992년 中·韓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속도가 빠르며 또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발전하는 양호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1996년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 달러로 1992년에 비해 4배가 성장하였습니다. 연초이후 양국간 경제 무역관계는 활발한 발전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상반기 양국간 교역액은 10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가 성장하였습니다. 韓國은 이미 中國의 다섯번째 교역파트너로 부상하였습니다. 동시에 中國도 韓國의 3대 교역파트너로 되었습니다. 쌍방간 무역의 끊임없는 증가와 더불어 최근 韓國기업의 對中國 투자도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6년말 현재 韓國기업의 對中 투자 누계 건수는 8,400여건, 협의 금액은 120억 달러, 실질 이용액은 3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韓國의 일부 대기업 예를 들면 三星·LG·現代·大宇 등 그룹들은 모두 中國에 대형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 中國은 韓國의 주요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수교 5년 이래 中·韓 양국이 경제협력의 추진과 서로간에 이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中·韓 경제무역관계의 진일보 확대는 양호한 기초와 많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中國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中國은 시장이 넓고 사회간접자본의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여러가지 법규와 제도가 보다 완비되었고 투자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中國은 적극적인 외자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밖에 中·韓 양국은 모두 동북아 지역에 속하고 문화배경이 같으며 상호 왕래의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현재 양국 경제는 상이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며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국 정부의 관련 부문간·기업간·학계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은 中國國家計劃委員會의 거시경제 정책결정을 위해 복무하는 직속 연구기관이며,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은 韓國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연구기구입니다. 두 기관은 똑같이 양국 정부 정책결정부문 내부의 연구기관인바, 지속적인 상호 교류활동의 추진은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두 연구원은 1994년에 공식적인 장기 협력관계를 맺어 비망록에 싸인하였으며 1995년에는 공동으로 “21세기를 향한 中·韓 공동번영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쌍방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두번째 세미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中·韓 양국의 경제전문가들이 中·韓 양국경제의 발전추세와 쌍무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전망 등 문제와 관련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의 진일보 발전을 위해 작자의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향후 中國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과 韓國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계속하여 다양한 협력과 교류활동을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中·韓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필연적으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고, 巨視經濟研究院과 對外經濟政策研究院간의 우호적인 협력과 교류도 필연적으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합니다!

2. 祝辭

姜慶植

副總理 兼 財政經濟院 長官

존경하는 李嵐淸 부총리, 그리고 본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양국의 연구원 원장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여러분! 먼저 본인은 21세기 韓·中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국은 수교이후 5년만에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협력관계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양국은 4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지역 안정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역면에서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199억 달러로 늘어나 中國은 韓國의 3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韓國도 홍콩·臺灣 등으로 대표되는 中華경제권을 제외할 경우 中國의 3대교역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투자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이 약 2,900건이나 투자할 정도로 급부상하여 中國이 우리나라의 2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민간 및 정부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여가고 있는 바, 이러한 경향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문턱에 와 있으며, 21세기의 도약을 위해 韓國과 中國은 공동으로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 체제의 등장으로 범세계적인 다자간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EU, ASEAN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에 대하여 韓·中 양국이 상호협력하에서 공동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中國측의 WTO 가입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韓·中 양국이 상호협력하에 세계경제질서에 동참함으로써 양국의 국익증진은 물론 세계경제내에서 동북아의 위상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北韓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東北亞지역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지역 불안정은 향후 양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東北亞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韓國과 中國의 공동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양국 간에 진지하고 미래지향적인 Vision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세미나 개최는 韓·中 양국은 물론 東北亞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무쪼록 건설적이고 유익한 토의가 기탄없이 이루어져 21세기 韓·中 경제협력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韓·中 수교 5주년과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간단하나마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吳 儀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部長

존경하는 姜慶植 부총리, 鄭鍾旭 대사, 내외 귀빈, 신사 숙녀 여러분

中·韓수교 5주년을 맞이하여 中國 國家計劃委員會 巨視經濟研究院과 韓國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공동으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21세기 中·韓 경제협력과 동반자관계의 발전전망을 연구토론하는 것은 아주 의미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李嵐清 부총리와 中國정부를 대표하는 동시에 나 개인의 명의로 기념세미나의 순조로운 개최에 축하를 보내며, 회의에 참석한 中·韓 양국 귀빈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中·韓 양국은 인접국으로서 유사한 문화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 인민이 맺은 우의도 역사가 유구합니다. 1992년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맺은 후 양국간 교류와 협력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경제와 무역 협력관계의 발전은 특별히 활기를 띠어 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양국간 무역액은 4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속도가 39.6%에 달했는데, 韓國은 이미 中國의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韓國의 대중투자는 13억 5,800만 달러에 달했고, 양국간 경제기술 협력은 더욱 폭넓은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호한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7년은 中國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中國정부는 금년 7월 1일에 一國兩制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대한 주권을 순조롭게 회복하여 中國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곧 개최될 中國共産黨 15차 전국대표대회는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발전을 위해 개최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中國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사업을 전면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中國은 대외개방의 기본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韓國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과의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적극 발전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中·韓 양국은 모두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무역·투자는 양국간 경제와 무역 협력에 양호한 외부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는 양호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같이 기술진보와 구조조정의 임무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간 경제와 무역 협력에 현실적인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中·韓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의 발전은 이미 양국간 협력을 위해 아주 훌륭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반드시 이러한 협력을 더욱 폭넓은 영역과 더욱 높은 수준으로 한층더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여 우리는 평등 및 상호 이익의 원칙과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이익을 중시하며 공동 번영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이며 실무적인 자세로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관계를 여러 수준에서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亞太地域 내지 전 세계에 대하여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세미나의 원만한 성공을 축하하며, 中·韓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와 양국 인민 우의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3. 午餐演說

鄭 鍾 旭

駐中 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원장, 余健明 中國巨視經濟研究院 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韓·中 양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韓·中수교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오찬연설의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있는 성장지역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韓國과 中國이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中國은 현재의 발전속도를 유지할 경우 무역·경제규모면에서 美國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이며 전반적인 국민 생활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中國경제의 발전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경제체질개선에 큰 진통을 겪고 있는 韓國경제는 앞으로 1~2년간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쳐 기술·자본집약형 경제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경제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韓·中 양국은 비록 수교된 지 5년에 불과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역·투자·인력교류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폭넓고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韓·中 양국은 이같은 튼튼한 협력의 기초 위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 인접성과 역사적·전통적 유대감은 우리의 협력에 토양이 될 것이며, 양국 국민들의 공동 번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강력한 협력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韓·中 양국간 협력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東北亞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발전에 특별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공동인식 아래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첫째, 그간 양적으로 증대되어온 무역·투자를 계속 보충시켜 나가면서, 질적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시적 무역불균형 현상을 장기적인 확대·균형 기조로 이끌어 가면서 투자에 있어서도 규모의 대형화, 투자기업의 현지화, 중국내륙지역 투자확대 등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산업협력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정보통신·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3국에의 진출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 오후 세미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 투자기업들의 상호 투자에 있어 노사문제, 자금 조달문제, 조세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양국간 투자환경의 활성화와 협력의 심화를 위해서는 양국정부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양국기업간 협력도 전략적 제휴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韓·中 수교 5주년 행사에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분야 행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국 국민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3~4년동안 다져온 경제안정기조 아래 앞으로 가속화될 中國의 경제발전은 韓國경제발전에도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5년동안 쌓아온 양국간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힘을 합쳐 나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규범이 되는 국가간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여 주신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中國巨視經濟研究院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오후 세미나에서도 보다 의미있는 토론과 새로운 韓·中 경제협력을 위한 실천적 결론이 도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行事結果報告 97-03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

1997년 12월 5일 인쇄

1997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인 楊 秀 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001,1114 FAX: 3460-1122,1199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73-7011 대표 李鎬烈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